

2023년
결대로자람학교
실천사례집

결대로 빛나는
우리 학교 이야기



[발간사]

누가 나아갈 곳을 묻거든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부터 보아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누가 나아갈 곳을 물으면 먼 산부터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변화를 논하려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찾은 방향만이 우리를 다시 달려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4년 차에 이루어지는 종합평가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치열한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속도에 치어 미처 보지 못했던 구성원들의 작은 상처를 돌보고, 힘에 부쳐 늘어진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어긋나있는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평가교 구성원들이 함께 성찰하고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매우 귀하고 값집니다.

우리는 성공담으로부터도 배우지만 시행착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빛나는 성공담’ 으roman 채워진 실천사례집은 우리를 깊이 있는 배움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작은 성공과 무수한 시행착오, 그 가운데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찾아낸 작은 오솔길 같은 실천 방안이 드러나는 사례가 우리를 더 가슴 뛰게 합니다.

올해는 결대로자람학교 종합평가교가 공동의 주제를 바탕으로 연합 컨퍼런스를 운영합니다. 결대로자람학교의 구성원들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전망과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혁신은 항상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혁신의 완성’ 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신의 지속’ 을 모색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별로 제출한 실천 사례에는 답변보다는 질문이, 자랑거리보다는 고민 거리가 더 많습니다. 종합평가교가 지난 4년간의 실천 과정에서 찾아낸 진지한 질문과 고민이 우리를 더 큰 지혜의 숲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발 딛고 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인천교육의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례

I. 작은 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 어떻게 지속가능할까?

- 한 명씩 눈 맞추며 마을과 만나는 학교 / 인천용유초등학교 9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수업, 작은 학교 사례 엿보기 / 인천천마초등학교 13
- 사계절과 지역성을 반영한 빛깔 담은 작은 학교 이야기 / 내가초등학교 18

II. 결대로자람학교에서의 교사 성장과 행복,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교육과정에 진심인 학교에서 찾은 교사 행복론 / 인천도담초등학교 25
- 결대로자람학교에서의 교사 성장과 행복, 그 함께함의 가치 / 인천석암초등학교 31
- 함께 성장해온 [행복송원]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기 / 인천송원초등학교 34

III.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혁신, 어떻게 가능한가?

- 교육회복, 학생주도의 생태시민 교육으로 희망을 그린다 / 인천연학초등학교 41
- 따사로운 갈월 봄날,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도약을 꿈꾸다 / 인천갈월초등학교 46
- 두둥! 학생 성공시대 교육을 향한 작은 발걸음 / 인천작전초등학교 52
-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해서초 학생자치 / 인천해서초등학교 56

IV. 함께 할수록 빛나는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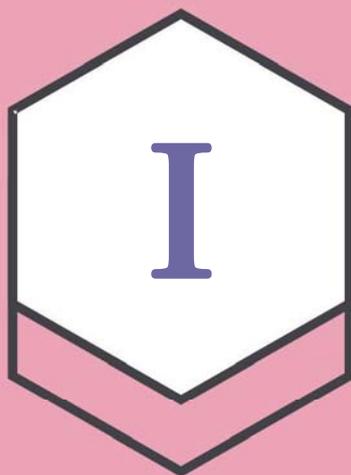
- 자발성과 방향성 공유로 함께 하는 '가석 전문적학습공동체' / 인천가석초등학교 63
- 함께 배움·함께 나눔·함께 성장하는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 / 인천양지초등학교 68
- 학생 수업 성공을 위해 함께 해요! 같이 해야 할 수 있어요! / 인천효성초등학교 72
- 함께 할수록 빛나는 교사, 다시 전학공에서 길을 찾다 / 인천화전초등학교 76

V.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 어떻게 가능할까?

-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 부일여자중학교 83
- 학생주도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 / 부평동중학교 92
- 학생주도성, 이상과 현실 사이의 무수한 날갯짓 / 인천영종고등학교 99

VI.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교육과정 운영, 어떻게 가능한가?

-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혁신 도전기 / 명현중학교 107
- 동산중의 '나·우·누리 교육과정'으로 학생 성장을 꿈꾸다 / 동산중학교 111
- '스스로'와 '더불어'를 배우는 CRE용 교육과정 / 용유중학교 116



작은 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 어떻게 지속가능할까?



인천용유초등학교
인천천마초등학교
내가초등학교



한 명씩 눈 맞추며, 마을과 만나는 학교

학 교 명	인천용유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6학급(53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3. 1.
공동주제 영역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1 들어가며



“선생님, 새봄이 형 오늘 왜 안 왔어요?”

4학년 찬열이가 어찌 알고 6학년 새봄이가 결석한 이유를 묻는다. 규모가 큰 학교라면 바로 옆 반 이어도 알기 어려운 시시콜콜한 일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된다. 선생님 들은 전교생의 이름뿐 아니라 아이들의 얼굴에 새로 생긴 작은 상처까지도 다 알아본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 학교가 총 6학급, 전교생 53명의 작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도심 학교에서는 먼 나라 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전국 학교들이 경험할 미래가 될 수도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2.7명, 그나마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을 포함한 평균이다. 교육부는 5년 뒤인 2027년에는 15.9명, 2033년에는 최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교육의 위기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획일성과 동일성을 극복하고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작은 학교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익명성을 넘어 공동체를 복원하다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의 일환으로 ‘학생소나무’ 활동을 실시한다. ‘학생소나무(소통과 나눔의 무리)’는 4~6학년 학생 30여 명이 수업시간에 함께 모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삼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토의를 진행하는 학생 자치활동이다.

작은 학교이다 보니 모두가 토의하며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된다. 학생들은 몇몇 아이들의 욕설 사건으로 불거진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성찰하며 ‘교내 고운 말 쓰기’를 학생회 주도의 실천 과제로 잡았다. 아이들이 직접 정한 과제에는 훨씬 주도적이고 실행력이 높다.

월 1회 개최되는 전교생 월맞이 모임에서는 한 달간 있었던 경사스러운 일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달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의 생일도 축하해준다. 자연스럽게 생일을 맞은 아이는 전교생의 축하를 받는다.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복원된다. 또래 친구만이 아니라 언니 오빠 동생이 생기고 하나의 가족처럼 의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들도 아이들의 특성과 수준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 명씩 눈을 맞추며 성장할 수 있는 교실, 그것은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다.



3 | 마을과 만나 삶을 배우는 학교를 꿈꾸다



영종도에 소재하는 우리 학교는 바닷가나 갯벌, 공항, 골프장 등과 같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교육 인프라가 많은 편이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 텃밭에서 기른 작물로 김장을 하여 인근 소방서나 경찰서에 기부하며 협력적 관계를 갖기도 한다.

계절별로 1주간의 집중교육 기간을 배치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마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마을과 연계하는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담장을 뛰어넘어 마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마을의 이해와 활용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우리 마을의 작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결해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학생주도성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년당 인원이 적다 보니 교내 대부분의 체험행사를 여러 학년이 함께 하게 된다. 10명 내외의 학년 2~3개가 모이면 도심 학교의 한 학급 규모가 된다. 여러 학년이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한데 어울려 지내면서 학년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자연스럽게 무학년제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아직 체험활동의 기획이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직접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욱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 프로젝트를 경험했던 상급생들은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후배들을 이끌며 프로젝트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영마루공원 체험활동



영종역사관 견학



마시안갯벌 체험활동



교내 텃밭 가꾸기



왕산해수욕장 요트체험



골프교실



지역 소방서 김장기부



스케이트 체험



인천공항 페스티벌 참가



마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4 |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80%의 학생이 셔틀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상당수 학생들이 돌봄교실과 늘봄교실에 있다가 부모님이 귀가할 시간을 맞추어 늦은 하교를 한다. 도심의 학교에 비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부모님이 직접 영동도 내 중심가나 시내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의 이런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심미적 감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용유예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 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물론 영어, 중국어 회화, 체험형 과학교실, 음식 만들기 등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프로그램 편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우리 학교와 지역의 여건, 학생들의 개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로 구현해 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



용유예술학교
-우쿨렐레배우기



용유예술학교
-칼림바배우기



실용도자기
만들기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원에 체험

5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답이 있다.



작은 학교의 강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학생들의 개별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가. 학생을 넘어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설계하는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무학년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 다. 마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마을의 작은 문제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주도성을 길러갈 수 있다.
- 라. 외부강사 중심의 방과후 활동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학교의 특성, 학생의 개별성이 다양성으로 구현되는 우리 학교만의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수업, 작은 학교 사례 알아보기

학 교 명	인천천마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3학급(199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3. 1.
공동주제 영역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1 숲에서 시작된 천마 이야기



작은 언덕길을 올라 정문에 들어서면 학교를 한가득 품고 있는 원적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덕분에 학교생활을 할 때면 이곳이 도심 속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 원적산에는 내세울 만큼 대단한 볼거리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둘레길과 공기 맑은 자작나무 숲, 뛰놀기 좋은 약수터도 있다. 이렇게 멋진 산에서 천마 학생들은 배우고, 자라고, 뛰어논다.

우리는 이렇게 숲을 학교 삼아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며, 삶 속에서의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미래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연구 중점분야를 '생태교육'으로 정하였고, 숲과 마을에서 성장하는 '결대로 행복한 학교'를 그리며 첫발을 내디뎠다.

2 자연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교



우리 학교에서는 'NON-SIBI' 교육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고 생태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민주 시민교육,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NON-SIBI'란 '나만을 위하지 않는'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세상 모두를 위한다'라는 이타적인 의미이다. 학생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계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숲속에서 공부해요.

우리 학교는 원적산에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숲에 있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숲을 활용한 여러 가지 놀이도 체험한다. 둘레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도 마시고,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간다. 학년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 숲 체험 교육과정은 여러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학부모님들의 도움도 받으며 천마초만의 특색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숲 생태 관찰



숲 놀이

숲에 대해 공부해요.

‘숲을 소개합니다.’ 프로젝트는 6학년 학생들이 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숲을 소개했던 프로젝트이다. 숲의 동식물, 둘레길, 숲 놀이 등 지금까지 매년 체험해 왔던 경험들을 갈무리하면서 어린이 숲 해설가로서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숲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스스로 주도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다양한 숲 홍보를 위한 자료와 작품을 만들었다. 직접 창작한 캐릭터로 다양한 굿즈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숲 동행 당일에는 동생들을 직접 인솔하여 원적산의 생태를 안내하고, 다양한 둘레길을 다니며 숲을 활용한 신나는 숲 놀이도 체험했다.



자료, 작품 개발 과정



숲 캐릭터 굿즈 판매



숲 체험 인솔



학생들이 창작한 숲 캐릭터



원적산 홍보 작품 (지도와 리플렛, 영상 등)



원적산 캐릭터 굿즈 (볼펜과 키링)

3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우리 학교에서는 숲을 활용한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친환경 에너지,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 등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모두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면서, 우리를 위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모두를 위한' 배움과 실천에 학생들은 자부심을, 교사들은 뿌듯함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은 결대로 자람학교와 프로젝트 수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마무리한 학생들의 눈에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다.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와 모두를 위한 가치로운 배움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 사례

학년	주제	내용
1	함께 꿈꿔요 함께 꾸며요	생태 발자국 작품 제작, 전시 동식물 클레이 작품 제작, 전시
2	생태 동화와 함께 떠나는 모험! 몸 튼튼! 마음 튼튼!	생태 동화책 창작, 생태 동화 오디오북 제작 운동을 통한 기부활동 참여, 클레이아트 작품 창작
3	학교 습지 탐구하기 황금'벼' 프로젝트	학교 습지 만들기, 습지 동식물 보전 캠페인 벼 추수, 벼 이삭과 알곡 관찰, 벼 활용 물품 제작
4	나는야 나무 지킴이! 나무야, 옷 입혀줄게!	텃밭 농사로 배우는 식물 한살이, 나무 동화 온 책 읽기 나무 양말목 작품 만들기, 나무에게 감사 편지쓰기
5	당신이 몰랐던 지구의 위기! 에너지 절약해 보고서	환경파괴 사례 탐구, 기후 위기 실천 캠페인 에너지 절약 방안 탐구, 에너지 절약 실천 영상 상영회
6	정크아트로 해결해요. 기후 위기! 맛있는 채식, 건강한 지구	자원 재활용 탐구, 병뚜껑 공동작품 제작 채식과 기후 위기 탐구, 채식 요리 실습, 홍보 부스 운영



기후 위기 실천 캠페인



황금 벼 수확하기

플라스틱 뚜껑 공동
작품(정크아트)

에너지 절약 홍보 영상 만들기

생태 동화와 함께 떠나는 모험(2학년)

- 생태동화 작가와의 만남
 - 생태동화 작가와의 만남
 - 동화책 제작 과정 알아보기
- 생태동화 스토리 구상하기
 - 생태 관련 주제 스토리 구상하기
 - 스토리보드(8컷) 작성하기
- 생태동화 삽화 그리기
- 더미북 만들기
- 생태 동화책 만들기
 - 더미북을 토대로 화지에 삽화 그리기
 - 화지 인쇄, 제본하기
- 생태동화 낭독하기
- 꼬마 작가들의 생태동화 발표회

맛있는 채식, 건강한 지구(6학년)

- 채식과 기후 위기와의 관계 알아보기
 - 채식과 기후 위기와의 관계 조사
- 채식 찬반 토론
 - 채식 찬반 토론, 채식 장점 찾아보기
- 채식 요리 실습
 - 맛있는 채식 요리 탐색, 실습
- 채식 홍보 부스 운영(전 학년 참여)
 - 지구를 살리자 / 맛있는 채식 시식
 - 실천 배지 만들기 / 채식 보드게임
 - 채소 이름 맞추기 / 채식 밥상 클레이
 - '채식을 몸으로 말해요' 게임
 - 채식 율동 배우기, 페이스페인팅
 - 홍보물 제작 및 홍보하기



작가와의 만남



생태 동화책 만들기



학생 창작 생태동화 작품



채식과 기후위기 탐구



채식 요리 실습



채식 부스 운영

4 | 마치며



작은 학교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우리가 찾아낸 답은 우리 학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학교교육 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 학생의 개별성 존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을의 원적산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교육을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지정을 거쳐 8년째 결대로자람학교를 통해 성장해 온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다. 천마초의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에 물음표를 가지지 않는다. 1~2학년 때는 즐겁게 배우고, 3~4학년 때는 반짝이는 눈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기다리며, 5~6학년이 되면 프로젝트 주제부터 활동 계획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 낸다.

이처럼 결대로 멋지게 자라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연구하고 도전하는 교사 공동체, 서로 돕고 채워주는 학부모와의 유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소중한 노력들이 모여 혁신학교와 행복한 학생을 지키는 큰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는 함께 힘을 모아 세운 이 기둥들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소중한 만큼 더 많은 노력들이 모여 하나의 꿈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 꿈의 끝에는 학생 하나하나 결대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계절과 지역성을 반영한 빛깔 담은 작은 학교 이야기

학 교 명	내가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6학급(39명)
소 재 지	강화군 내가면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3. 1.
공동주제 영역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1 '내가 최고! 내가 할게!!' 4년 간의 실천



내가 최고! 학교에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참 밝다. 학교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가 행복하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마을과 협력하여 함께하는 내가 할게! 교육공동체로서 노력한다.

강화 내가초는 전교생 39명의 작은 농촌학교이며, 인천형 혁신학교인 '결대로자람학교'를 8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체인지 어울림 성장형 교육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다. 학생 주도형 체험중심 교육과정은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마을과 어울려 살아가며, 스스로 장점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도록 돕는다.

2 사계절과 지역성을 반영한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기후생태환경, 평화, 역사, 문화, 진로, 스포츠, 마을을 연계한 에코계절학교는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의 결과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메아리로 기억되어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 역량은 마을과 지역 사회에 다른 메아리로 전파되길 기원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이다.

공동체 철학 공유와 대주제를 선정 후, 미래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활동가, 교육 주체들의 참여로 풍성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전 학년 무학년제 계절학교는 교육균형발전 학교특색교육, 세계시민교육, 학생자치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주제 중심으로 설계한다.

봄	구분	2023.4.17.(월)~4.21.(금) 생태, 환경, 기후, 미래					
		월(8교시)	화(8교시)	수(8교시)	목(8교시)	금(6교시)	
	오전	안전사제동행-피구 축구	봄맞이세계시민놀이마당	국화리야영장숲체험	드론비행교실	마을연계봄체험	
오후	내가국회,생일잔치,공연	사제동행 환경플로킹	다문화체험	과학체험	인라인스케이트	발표회,공감토크	
여름	구분	2023.7.17.(월)~7.21.(금) 여름스포츠, 해양, 역사, 진로, 미래					
		월(6교시)	화(8교시)	수(8교시)	목(2교시)	금(4교시)	
	오전	안전사제동행-자전거	진로외부체험-생존수영	마을연계강화섬체험	드론비행교실	공연,발표회,방학식	
오후	내가국회,생일잔치			인라인스케이트	여름방학		
가을	구분	2023.10.16.(월)~10.20(금) 기후, 생태, 통일, 미래					
		월(8교시)	화(8교시)		수(8교시)	목(8교시)	금(6교시)
	오전	5-6테마수학여행	5-6테마수학	1-4마을연계	진로외부체험	드론비행교실	생일잔치,공연리허설
오후	1~4 롯데월드	여행스케치	가을체험	-생존수영	인라인스케이트	드림발표회,공감토크	
겨울	구분	2023.12.18.(월)~12.21.(목) 겨울스포츠, 환경, 기후, 진로, 전통					
		월(6교시)	화(6교시)	수(8교시)	목(8교시)	금	
	오전	안전사제동행겨울놀이	꿈끼찾기 프로젝트	꿈끼찾기 프로젝트	꿈끼찾기 프로젝트	재량휴업일	
오후	내가국회, 생일잔치	스키캠프	스키캠프	스키캠프			

3

삶과 연계된 빛깔 담은 작은 학교 이야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다양한 탐구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빛깔 있는 사계절 에코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주도형 학생자치활동 강화와 사제동행 소통문화 형성

매월 1회 내가다모임은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올바른 민주시민성을 길러내는 내가 국회, 생일잔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게임과 놀이를 즐기면서 건강한 심신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 있다.



내가국회



생일잔치



안전교육



사제동행어울마당

기후생태환경 변화대응 자율과 책임, 세대공존 문화 조성

분기별로 자전거와 도보로 저수지 둘레를 돌며 환경 플로킹을 실천하고 모내기 및 감자 수확, 텃밭 재배 등 행복씨앗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전환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진우 작가와 함께 강화를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교육공동체가 협동하여 벽화를 완성하기도 했다. 조롱박을 직접

심고 가꾼 후 수확한 후 '조롱박이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예술로 탐구생활' 등을 통해 계절별 농촌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 타기



도감뿌리농원(모내기)



교육공동체 협동벽화



예술로 탐구생활(조롱박)

배움과 성장 지원, 지역연계 주제중심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발굴현장을 탐방하며 강화천도시기(39년) 역사를 배우고 강화나들길 탐방을 통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키우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강화의 특산물인 화문석(꽃무늬를 놓은 자리)을 장인과 함께 만들어보는 왕골공예와 은울탈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전통문화를 탐구하고 있다.



문화재발굴현장



강화나들길 탐방



왕골공예



은울탈춤

학습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혁신, 창의융합 인재양성 디지털 역량 함양

SW 맛보기 학년군별 다양한 실습, 미래과학 원리 탐구, 드론 비행기술 실습 등을 통해 미디어 문해력 및 디지털 역량을 키우며 창의융합형 함께 배우는 수업을 구현하고 있다.



언플러그 실습



메타버스 실습



로켓원리 실습



드론비행체험

❖ 학습격차 해소,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공동체 학교참여 활성화

교육공동체가 함께 인도의 세븐 스톤, 베트남의 쭈운쭈운, 캄보디아의 스바엑 뜨응 프또앗, 인도네시아의 라리카유 등에 대한 VR 가상체험, 한국의 해오름 놀이, 단심줄놀이, 별자리 캠프 등을 통해 큰 세계를 경험하고 꿈꾸며 세계 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4 | 작지만 강한, 날마다 행복한 내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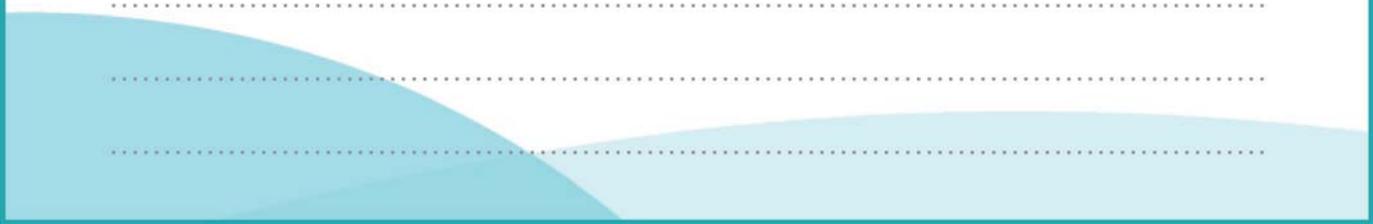
학생들은 공동체 문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소통과 배려를 배우며 작은 성장과 변화가 계속된다. 8년간 학교 비전의 풍성한 공유로 교육공동체가 매년 워크숍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만들고 실천해 왔다. 교육공동체 성찰협의회를 통해, 사계절 에코 계절학교, 읽·건·쓰 정착화, 마을연계 독서활동 강화,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강화, 교사·학부모 독서토론회 운영, 인천형 미래인재 영어교육 활성화, 교육균형 특색교육 지속 운영, 학생주도형 자치문화 조성 필요 등 새로운 4년의 방향과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학생 자신이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며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찾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가운데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내가 최고! 내가 할게!! 교육공동체'는 오늘도 서로를 응원하며 웃는 하루를 시작한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결대로자람학교에서의 교사 성장과 행복,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석암초등학교
인천송원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진심인 학교가 찾은 교사 행복론

학 교 명	인천도담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32학급(634명)
소 재 지	인천 서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3. 1.
공동주제 영역	교사 성장시스템		

1 결대로자람학교에서의 교사 성장

선생님, 어느 학교로 옮기실 거예요? 결대로자람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로 옮기실지 늘 궁금했다. 4년간의 결대로자람학교 근무가 정말 힘들다면 일반 학교로 옮기지 않을까?

결대로자람학교 4년 운영을 마치며 8년 만기 선생님 2명, 4년 만기 선생님 2명, 학교를 옮기신 선생님 3명을 만나 결대로자람학교 4년이 교사에게 준 성장과 소진에 대해 묻기로 했다.

4년을 마치시고 올해 학교를 옮기시는 선생님과의 대화 중 처음 우리 학교로 옮기게 되었을 때 주위에서

- 도담초 쉽지 않아,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교사A)

라는 말을 많이 듣고 각오를 하고 왔다고 한다. 이 외에도 도담초에 오기 전 떠도는 괴소문은 많다고 한다.

- 교육과정 재구성을 안 하면 큰일 나는 학교다. (교사B)
- 그 학교 가면 교육과정을 내가 다 짜고 운영해야 한다. (교사C)
- 차라리 업무가 편하지 늦게까지 교육과정 연구를 많이 한다. (교사D)

이런 소문들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부담들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도담초에서 근무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떨까?

-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불편할 텐데 그냥 내가 평소에 아이들 이랑 해보고 싶었던 것을 충분히 교육과정이란 연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교사D)
- 이전 학교에서 겪어보지 못한 것들, 업무가 없는 환경이라든지, 교육과정에 진심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A)

그럼 이런 학교에서 4년간의 경험은 교사에게 어떤 성장을 주었는지 물었다.

-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적인 면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선생님들과의 즐거움을 느낀 게 가장 큰 성장인 것 같아요. (교사F)
- 앞으로 내가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위치 혹은 어떤 자인가도 자각하게 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보기도 한 아주 좋은 기회였죠. (교사G)
- 교육과정 그것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전까지는 내가 아이들을 무작정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따라오시오!"였다면 도담에서의 교육과정은 아이들과 함께 계획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의 교육과정이 짜졌다는 거지. (교사B)
- 우선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교육과정은 뭐지? 읽는 방법 예전에는 지도서를 읽는 걸 했었는데 교육과정 전체를 읽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생각하게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더 먼저였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재밌겠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자신 없어도 애들이랑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좀 교육과정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게 성장인 것 같아요. (교사E)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도담초에 전입하는 순간의 괴소문과 부담부터 만기 전보로 학교를 옮기는 순간까지 선생님들의 긴장과 성장은 모두 교육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육과정에 진심이구나 이 학교...’라는 말로 모두가 정리된다는 느낌처럼.

2 교육공동체 성찰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보고

- ❖ 창의적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 블록타임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활동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중간 놀이 실시
- ❖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학년별 진행
- ❖ 가치집중교육, 온책읽기, 마을연계, 문화예술, 생태환경 영역이 중심이 된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학생	344	12.75	1.05
교직원	45	14.20	0.46
학부모	336	13.07	0.7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토론주제 설정



교육공동체 성찰 대토론회



교육공동체 자유토론



교육공동체 성찰 대토론회를 마치며

교육과정에 진심인 학교, 그런 교사들의 열정은 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에서 잘 나타난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하면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이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 묻는 교육공동체 성찰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학생들의 만족도 표준편차가 높은 이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만족하고 있지만 소수의 불만족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토론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회의 독립적인 토론을 거쳐 3자치회의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각 자치회 대표의 열띤 토론도 인상 깊었지만, 방청석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오하려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며, 도담초 결대로자람학교 8년간의 운영의 결과가 도담 교육공동체 모두를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 만족도에 가려진 행복



가. 소수의 행복하지 못한 학생들

학생자치회 성찰협의회를 통해 결대로자람학교인 도담초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느낀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다. 먼저 중간놀이 시간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중간놀이 시간에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놀이나 이야기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지만 교실 안의 수업보다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물론 학년의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험 중심의 운영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실이든 교실 밖이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살아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활발한 토론이 되었던 문화예술 수업에 대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문화예술 수업으로 1인 1악기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우선 악기 연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억지로 악기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기(기타, 바이올린, 우쿨렐레)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악기 종류가 적어 하고 싶지 않은 악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러한 불편함은 결국 악기 수업에 흥미와 소질이 없는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수업의 운영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문화예술 수업이라는 큰 틀 아래 각 학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수업으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사의 성장 속에 가려진 교사 소진

도담초 교사들은 종종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하얗게 불태웠다.’, ‘뼈와 살을 갈아 넣은 교육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 속에 교사의 성장도 있음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성장 속에 교사들이 어떤 점에서 소진되고 있을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무엇이 도담초 4년 동안 교사를 소진시켰을까?

- 결대로자람학교를 하려는 사람이 점점 우리 학교 안에서도 점점 줄어드니까 나는 그게 소진되는 것 같아요. (교사E)
-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좀 너무 빨리 달리려고 했던 점,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점들이 나를 지치게 한거 같아. (교사C)

- 좀 더 많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서로 뭔가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철학이 하나 되는 그 방향성을 같이 보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방향성이 항상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교사F)
- 다모임이 힘든 것보다 약간 다투는 분위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교사들끼리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사A)
- 소수의 리더 몇 명이 학교의 전통 혹은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사람들은 도담초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유로 따라가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되더라고. 공동체라면 우리가 위, 아래가 있지 않고, 모두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의견을 조합하고, 그 과정 속에 내가 구성원임을 느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어떤 틀렸어요, 맞았어요 하는. 이런 일들이 새롭게 온 사람들을 자꾸만 움츠려들게 되거나, 그래서 공동체라고 한다면 사실은 초반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더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듣는 일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해. 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의견을 제시할 만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따라가게 되거나 침묵하는 일들에 의해서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 (교사B)

인터뷰의 모든 내용을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교사의 소진은 공동체와 관계로 정리된다. 우리는 어떻게 도담 교육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행복한 교사의 삶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4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가진 다양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이며, 정의가 구현되어야 인생의 목적인 '행복'이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 개인의 탁월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즉,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와 우정의 역할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행복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대로자람학교에서의 교사로서 행복하려면,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혼자 교육 과정 재구성을 열심히 하는 교사는 행복할까? 함께 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운영하는 좋은 동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동료들이 모여 좋은 공동체(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공동체는 누군가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일방적 지시로 공동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주인공으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안전한 학교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소수의 혁신학교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결대로자람학교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다모임 회의 문화, 학교의 전통이라 말하며 평가를 통해 혁신하기를 거부하는 여러 사업들,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토론이 아닌 맞고,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다수결 투표 방법 등, 평등한 공동체성에 반하는 일들이 교사를 소진시키며,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침묵을 동의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집단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평균의 종말] 저자 토드 로즈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며, 이러한 현상을 '집단 착각'이라고 한다. 맹목적인 순응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교사로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게 된다.'는 푸코의 말처럼, 서로의 창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며, 좋은 공동체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학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비난이 아닌 존중을 해주는 내 발언이 안전한 학교,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교사는 행복을 만나는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의 우정이 중요한 것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저자들처럼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글을 마친다.

결대로자람학교에서 교사 성장과 행복, 그 함께함의 가치

학 교 명	인천석암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38학급(949명)
소 재 지	미추홀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교사 성장시스템		

1 방향은 같게, 그러나 운영은 우리들만의 결대로

‘가치공동체’가 공동체의 출발이다

공동체는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 시작이 된다. 그렇기에 결대로자람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세우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공동의 가치를 세우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되 그 운영은 교사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임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돋보이게 된다.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석암초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알고 교육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그 틀 안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성장해옴으로써 혁신학교로서의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해올 수 있었다. 여기에 지난 4년 동안 석암초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사들은 그간의 혁신학교의 성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래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석암초만의 교사 성장과 행복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결대로자람학교의 새로운 모습을 다시 설계해 보고자 한다.

2 따뜻한 석암 교사공동체를 꿈꾸다

교사 다모임, 존중과 어울림을 잇다

존중과 어울림이 있는 배움터를 위해 석암교육공동체는 공동체별 협의체 구성과 그에 따른 활발한 의견 교환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 안에서 교사들 간의 소통 협의를 위한 다모임의 활성화는 교사 민주주의 과정의 디딤돌이 되어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 교육활동에 녹아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코로나 19로 다모임 운영 제한이 커 전체 교사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다모임의 형식이나 규모에 대한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학년 간 다모임이나 비대면 줌(zoom)을 활용한 다모임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다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 운영의 어려움과 해결책 공유, 교사간의 정서적 지원을 이어 나갔는데, 힘든 시기일수록 감성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다모임은 교사가 지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교육활동이 정상화가 된 올해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교사들의 다변화된 참여와 소통이 보다 적극적인 다모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 효율성을 위해 다모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달을 위한 회의를 지양하고, 구성원들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여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방향은 같게, # 학교 비전 세우기



커피가 있는 존중과 어울림, # 감성적 해결

집단 지성의 힘, 전문적학습공동체

전통적으로 교사들은 학급 내에서 주로 혼자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동료 교사들과의 접촉이 적어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에 혼자 대처해야 했으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개인적인 연수, 혹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물리적, 정서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교사 개인의 희생과 소진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혼자가 아닌 동료 교사들과 공동 관심사와 고민에 대해 나누고 공유하면서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만들어가는 협력 지향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공동수업연구, # 동료장학



전문적학습공동체, #취미가 있는 전학공

무엇보다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년형과 주제형 및 교간형 등 다양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본교는 전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식적인 운영일과 예산을 배정해주어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학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경우 교수학습 운영방안-연구-실행-평가로 이어지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 및 전교 단위 공개수업도 추진함으로써 교사의 수업력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3

우리의 의견은 소중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더 소중하다



결대로자람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소수의 의견이 소중한 이유

4년간의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석암교육공동체들의 만족도 조사 평균은 15점 만점에 교사는 14.2, 학생은 12, 학부모는 12.6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동체의 학교 만족도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다수의 의견 속에 숨겨진 소수의 의견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석암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중 교사의 평균이 가장 높지만 일부 Top-down식 업무 전개 방식 개선과 진정한 '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비전 공유의 기회, 일부 소수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권 보호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앞으로의 학교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만족도 조사 뒤에 감추어졌던 의견들을 듣는 과정은 교육공동체의 사회적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더 나아가 따뜻한 교사 성장과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4

결대로자람학교의 심장은 교사이다



교사가 결대로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 몸속 어느 기관들도 곧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학교에서의 심장은 바로 교사라는 진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특히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한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교사가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간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교권 침해에 대한 소식들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연 저마다의 결을 살려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소통과 가치 공유에 대한 기회 마련과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교사 공동체의 적극적 지원, 더 나아가 교육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율권의 확대와 지지는 더욱 소중하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결대로자람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심장인 교사가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함께 성장해온 [행복송원]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기

학 교 명	인천송원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39(892)
소 재 지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60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03. 01.
공동주제 영역	교사 성장시스템		

1 모두가 함께 교사 행복 성장시스템 만들기



송원초등학교는 행복배움학교 지정 및 결대로자람학교 재지정이라는 8년간의 혁신학교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교사 성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성장 과제

수업 및 교육과정 성장시스템

성장 전략

-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공동의 시스템 구축**
 - 학년별 작은 학교 만들기 및 학년 교육과정 중심 문화 만들기
 - 학년 특성과 학습 위계에 따른 연계·확장성 나선형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주체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 학년별 수업 공동 연구 및 수업안 작성을 통한 학년 수업 나눔의 날 운영
 - 교육공동체 상호 소통을 통한 송원 혁신 교육 철학 및 비전 함께 만들기 워크숍, 학기별 수업 나눔 협의회 [수(업을)바(꾸는)시(간)] 운영
 - 인근 유·초·중이 함께 설계하는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성장중심 진로 교육과정 운영
- **배움중심수업 혁신 시스템 구축**
 -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탄력적인 블렌디드 수업 구성과 창의적 학습 및 과정중심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실현
 - [스스로 배움장]을 통한 학생의 자발적 학습체제 구축
 - ※ 스스로 배움장: 매해 자체 제작하는 코넬식 노트 정리 방식의 자율적 학습 정리장
 - 학습 및 평가의 가정 연계를 위한 [송원이들의 성장이야기] 파일 제작
 - ※ 송원이들의 성장이야기: 매해 자체 제작하는 평가 계획, 학생 학습 결과물, 평가 결과가 집약되어있는 개별 과정 중심 평가 통지 파일
- **수업 질 향상 시스템 구축**
 - 경인교육대학교 실습학교 운영을 통한 배움중심 수업 혁신 및 나눔 실현
 - 실습교사 및 비실습교사가 함께 전학년 공개 수업 및 수업 연구 참여를 통한 수업 공동 연구 및 질 향상
 - 교육청 및 지역의 교육과정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학습 제공

<p>성장 과제</p>	<p>수업 및 교육과정 성장시스템</p>
	<p>※ 놀이 중심 [놀자학교], 수학 중심 [수학나눔학교],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커리어코치], 과학정보 교육 [SW프로젝트], 동부 온누리학급 운영교,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 영어활용능력 함양교육, 세계문화 체험의 날], 연수 글로벌에듀업 프로젝트 [글로벌 동아리-환경예술밴드동아리: Save The World, 세계시민 교육 동아리: 알쓸신인] 운영</p>
<p>성장 전략</p>	<p>-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 해송초등학교와의 연계 수업 연구 실시, 연수교육 혁신지구 [진로중심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연수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 학교 지정, 학교 주변 [송도체육센터, 해찬송공원, 해찬솔도서관, G타워, 인천도시문화역사관, 센트럴파크] 등 인프라 활용</p>
<p>성장 과제</p>	<p>학급경영 성장시스템</p>
<p>성장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교사 1연구제(Only One) 브랜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사가 자신만의 학급경영 브랜드를 구축하는 1교사 1연구제(Only One)를 통한 특색 있는 학급경영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급 및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학생 자치 법정, 또래 상담 운영 - 매월 학생 자치회의 결과 및 자율 실천 점검표 작성을 통한 교사-학생 상생 학급 운영
<p>성장 과제</p>	<p>교사 개별 특성 성장시스템</p>
<p>성장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학습동아리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기준, 6개의 학년형, 2개의 주제형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10종류의 다양한 교간형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운영 및 참여 • 다양한 교육 연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개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 연구 활동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대로자람학교 성장지원 학교혁신 현장지원단, 동부 교육혁신지원단, SW교사연구회, STEAM교사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정책 추진단, 인천읽기그림책 개발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및 지원단, 초등 수업나눔교사 및 강사, 초등과정중심평가 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현장연수단, 학생중심(인성) 영상 동아리 운영, 교-수-평 통합지원단 및 컨설팅, 정책-원격연수 운영지원단, 과정중심평가 모델개발 공모팀, 미래형 서논술평가 모델 개발팀
<p>성장 과제</p>	<p>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사 성장 지원시스템</p>
<p>성장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업무 및 행사에 대한 업무 구분을 넘어 자발적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업무 추진 - 업무지원 실무사 협조를 통한 행사, 업무 간소화 및 교원 행정업무 경감 - 토론과 소통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및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 - 선생님을 위한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스승의 날 행사 기획 -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매일 아침맞이, 경어 쓰기, 교권 존중 등) 활성화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수업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동체 지향 학교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목적에 따라 변화 가능한 다목적 학습 공간 [꿈빛누리], 층별 테마가 있는 [송원 작은 미술관], 학생 정서 함양을 위한 야외 [중앙정원] 조성
<p>성장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자료실, 음악자료실,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테라스 [하늘누리] 조성, 미래교육이 가능한 ICT 기반 블렌디드 학습 환경 [지능형 과학실] 구축 - 학급별 교수용 패드, 원격리모컨, 무선정보화 기기 등 첨단 기자재 지원

2

교사의 성장이 가능했던 촉매제, 함께 [행복송원] 문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원초등학교는 수업 및 교육과정, 학급경영, 교사 개별 특성 성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결대로자람학교 운영과 더불어 경인교육대학교 실습학교 및 각종 학습 지원 사업 운영을 매해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각에 따라 교사 행복보다는 업무량의 증가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행복이 업무의 양과 반비례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 다음은 송원초등학교가 지난 4년간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마무리하며 실시한 만족도 설문 조사 중 성장 및 행복한 학교생활 관련 항목 일부와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결과이다.

1)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만족도 결과 (교직원)

평가 내용	평균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7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편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라고 생각하십니까?	4.9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8
우리 학교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노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8
동료 교사들은 선생님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준다 고 생각하십니까?	4.9
우리 학교는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8

[표1] 교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수: 52, 항목당 배점 5점)

2) 송원인들이 들려주는 교사 성장 이야기

▶ 우리 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송원초에 계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 학생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선배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활발히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기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순간, 순간이 보람있었습니다. (조00선생님)

▶ 송원초에서 결대로자람학교 실무사로서 5년 동안 업무지원을 해주시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업무를 지원하다 보면 모든 교직원들은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고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눈에 띄어 어떻게 송원에는 이렇게 다 좋은 선생님들로만 구성되어 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선생님들께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원의 조직 문화가 좋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문화를 더 좋게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00 결대로자람 실무사님)

▶ **우리 학교는 결대로 자람을 통해 어떤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저는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학년 부장을 했어요.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교육과정에 대해 학년, 그리고 학년을 넘어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이 수업으로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열심히 하는 선생님과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성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00선생님)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본교는 함께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며 교육공동체 안에서 교사도 행복한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결과는 적은 업무의 양이 아닌, 함께 해결해 나가고 연구하는 학교 교육 운영을 기반으로 무엇보다 교사를 지지하며 존중하는 관리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3 함께 나아가는 걸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

송원초등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는 본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함께 걸을 만들어 내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중간에 유입되는 구성원들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송원초등학교는 함께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전입교사 대상 적응 멘토 지원과 구성원 간의 꾸준한 대화의 시간이라는 기다림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4 송원초등학교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학교의 결대로 성장하려 합니다.

송원초등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해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교육공동체 형성, 성장 중심 학교 교육 운영,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까지 모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일구어 왔다. 송원초등학교는 향후에도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 월별 다모임, 간담회, 수업 공유 협의 등을 활성화하며 예산의 적절한 분배, 사업의 간소화 및 변형 등을 통해 이러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송원초등학교만의 브랜드로써 [행복송원]이 변함없이 우리 학교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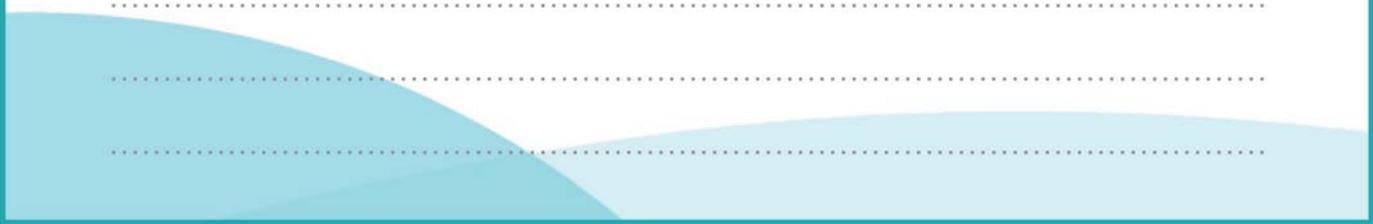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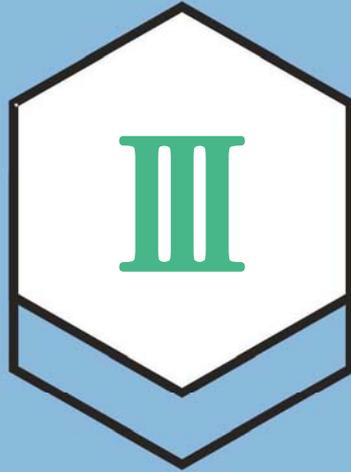
2023학년도 스승의 날 기념
학생자치회 이벤트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혁신, 어떻게 가능한가?



인천연학초등학교
인천갈월초등학교
인천작전초등학교
인천해서초등학교



교육회복, 학생 주도의 생태시민교육으로 희망을 그린다

학 교 명	인천연학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8학급(322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학생중심 교육과정		

1 | 교육회복 시대의 사명, 생태시민의 가치와 마주하다



팬데믹 4년, 교육생태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좌절과 가능성은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제 그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교육회복’이 아닐까 싶다. 공동체를 위한 교육회복은 곧 ‘생태적 전환’이며, 이는 생태계 속의 ‘너’와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연결하여, 공진화의 가치를 위해 성장해가는 민주시민의 덕목이자 미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년 공동체(학생-학부모-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그 뜻을 모으게 되었다. 워크숍에서 함께 교육공동체의 상을 정리하면서 기후생태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을 종합하였고, 이로써 (연학어울림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 2023 연학 교육공동체의 상(象) >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학교·마을상
교육공동체의 상(象)	학생	긍정적인 예의있는	화내지 않는 소통하는 들어주는	내 장점을 잘 아는 칭찬을 잘하는	안전한 깨끗한
	교직원	예의바른 존중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성실한	즐거운 소통하는 행복한 여유가 있는	신뢰하는 존중하는 협조적인 소통하는	가고 싶은 안전한 평등한 깨끗한 소통하는 지원하는
	학부모	배려하는 학생 소통하는 꿈을 찾아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차별없는 믿고 지지해주는 배려하는 신뢰하는	지원하는 편견 없는 배려하는 소통하는 성실한	행복한 즐거운 자유로운 잘 가르치는 협력하는

2 주제 중심 교육과정 완성을 위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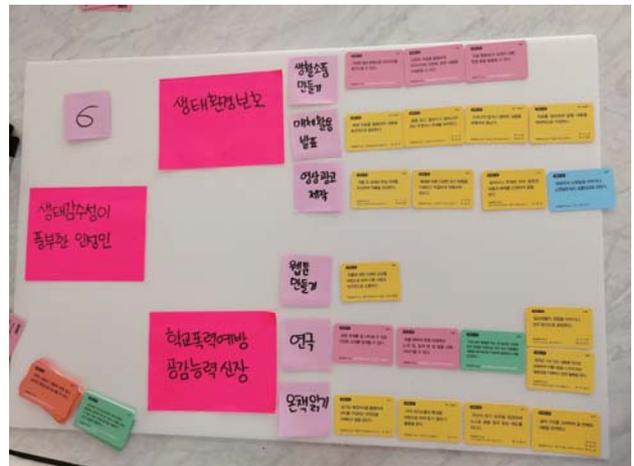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학급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선생님들이 학년 군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정리한 가치를 토대로 학년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관련 있는 교과와 성취기준을 예상 활동과 연결하여 교육과정을 완성하였다. 대부분 이야기에서 나온 주제는 자연에 고마움을 느끼고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로서 공진화를 추구하는 생태계를 추구하는 내용 등이었으며, 전체 학년에서 나온 주제들을 정리하여 보니 (인성교육, 기후위기극복, 생태적 전환)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개발 단계에서 세부 계획 설계 시 내용과 양식을 최대한 간소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이유는 실제 운영에서 학생이 교육과정을 주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발현적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 연학어울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역량·방향 〉

- ※ 인성교육 관련 핵심 가치·덕목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 ※ 인성교육 관련 핵심 역량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 ※ 생태시민교육 기본 방향
(공존·포용성, 일상성, 통합성, 실천성, 지속가능성, 지역성)¹⁾

(연학어울림)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

- 〈1. 인성교육〉 효도와 공경, 생명 존중,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 정보 윤리
- 〈2. 기후위기극복〉 자원 순환(재활용-쓰레기 감축), 자원 활용(학교숲+텃밭 활용)
- 〈3. 생태적 전환〉 폭력+전쟁+환경파괴 반대, 공정무역(소비), 공동체 회복(사회·생태공동체의 공진화, 지구생태계 문제해결)



교육과정 개발 과정1(교육과정 범주 정하기)

교육과정 개발 과정2(주제-성취기준 연결)

1) 2016년 흥성 환경교육선언(출처: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2019)

〈 연학어울림 교육과정 운영의 개요 〉

어울림 교육과정이란?	학교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의 가치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능력·갈등해결능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자연과의 어울림, 사람과의 어울림, 자신과의 어울림)				
교육목표 (학생상)	신나는 미래를 꿈꾸며 소질을 계발하는 학생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탐구하는 학생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키워드	미래, 도전, 예술, 나눔				
구분 학년	생태시민교육 (기후위기극복, 생태평화, 인성)	코딩교육 (마을이해 콘텐츠와 연계)	현장체험(외부)	예술교육 (악기교육포함)	학년 특기사항
1학년	자연과 더불어 프로젝트 (27차시)	(혁신지구연계) 창체 9차시	미추홀공원 연경산(2회) 옥토끼우주센터 (10.5)	도예체험 (인성도예원) 국악수업 9차시	배움 꾸러미 책자 활용
2학년	연학 봄맞이 프로젝트 (44차시)	(혁신지구연계) 창체 10차시	학교 인근 숲체험	도예체험 (인성도예원) 봄패션쇼	.
3학년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25차시)	(혁신지구연계) 창체 10차시	학생안전체험관 (6.12.) 학교주변 탐방 (6.19) (미추홀구마을관찰프로그램) 아쿠아플라넷 (일산,8.24)	마을 모습을 찰흙으로빚기 2차시 국악수업 9차시 리코더 9차시	.
4학년	우리는 생태환경 지킴이 (11차시)	(혁신지구연계) 창체 10차시	미추홀공원,도호부관아 (4.13.) 학생안전체험관 (6.12.) BMW주니어캠퍼스 (8.25.) 마을탐방프로그램 (10.24, 25)	국악수업 9차시 리코더 9차시	.
5학년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18차시)	(혁신지구연계) 실과 5차시	교육과학정보원 (5,10월) 학생안전체험관 (10월) 경복궁(10.25.)	오카리나 14차시	교실놀이 동아리 운영
6학년	환경 생태지킴이 프로젝트 (26차시)	실과 8차시	롯데월드(4.21.) 업사이클에코센터 (도보 2회) 교육과학정보원 (7,10월, 버스) 스포츠몬스터 (고양, 9.21.) 학생안전체험관 (10월)	우쿨렐레 9차시 국악수업 9차시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기타 (행사)	5월 4일 어린이날 아침맞이/5월 11일 운동회/11월 진로체험주간				
학생 동아리	연학착한나눔(봉사), YBS학생영상자율동아리				

3 배움과 나눔, 그 어울림 속 '선 넘는' 학생들



연학어울림 교육과정이 미리 예상한 대로, 정해진 각본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울림은 크다.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자연의 한 구성원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또한 해당 분야의 지식을 스스로 재구성하여 토래, 또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서로 만나 배움을 나누는 활동 등에서 미래 생태시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선생님도, 학생의 모습으로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배움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배움공동체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4 미래생태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그리며



연학어울림 교육과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작은' 학교지만, '더 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회복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까? 처음을 넘어, 미래의 가치를 향해 같이 가는 교육회복이 되었으면 한다. 연학어울림 교육과정이 단순히 결대로자람학교의 부산물만은 아닐 것이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선순환의 교육과정이 되길 바란다. 미래생태시민의 가치를 향해, 학생이 주도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선순환의 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연학어울림) 교육과정 활동 사례



(낙엽으로 완성한 생태계)1학년



(교육과정 설계-실천아이디어 모으기)3학년



(학교는 숲놀이터)5학년



(공정무역 전시회)6학년

(연학어울림)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개요

구분	프로젝트 주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	관련교과 (총시수)
1학년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우리	자연에서 놀이하고 관찰하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음을 알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통합, 창체 (27)
2학년	〈어서 와, '봄'아!〉 연학 봄맞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봄이 되어 변화되는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나만의 봄 식물 심기를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울러 2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봄 날씨에 알맞은 옷차림을 소개 및 홍보하는 '봄 패션쇼'의 기획 및 참여자가 되어 또래 학생들과 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봄 패션쇼'를 여는 과정에서 봄 날씨의 특징과 알맞은 생활 모습을 홍보하고 봄의 모습이 담긴 교실을 꾸미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큰 성취감을 느끼고, 학교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통합, 창체(44)
3학년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우리 지역의 깃대종을 알아보고,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번식지와 서식지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생명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국어, 과학, 사회, 도덕, 미술 (25)
4학년	우리는 생태환경 지킴이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알아보며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국어, 과학 (11)
5학년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토의 현실과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방안을 탐색한다.	국어, 사회, 미술, 창체 (18)
6학년	우리는 생태환경 지킴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국어, 음악, 실과, 도덕, 창체 (54)

따사로운 갈월 봄날,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도약을 꿈꾸다

학 교 명	인천갈월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26학급(555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학생중심 교육과정		

1 [시작_일] 학생, 결대로자람학교 구성원으로 발 딛기



갈월 결대로자람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우리는 갈월 결대로자람학교 학생들이에요.

우리의 성장 이야기는 마치 나비의 한 살이 같아요.

나비의 알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결국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는 많은 잎을 먹고 또 잎을 찾아 이동하며 폭풍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새 번데기가 되어 움직임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죠. 그 결과는? 멋진 나비가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서 처음 목소리를 내는 일이 어렵고,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막연했는데, 학생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 의해서 학교가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2023년 오늘까지 왔는데, 요즘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회 다모임이나, 행사 추진 같은 자율활동에만 한정되어 있는가?'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번데기는 죽은 것도, 성장을 멈춘 것도 아닌, 더 멋진 성장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말예요. 우리 갈월 결대로자람학교 학생의 성장 이야기, 들어 보실래요?

‘더디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추구한다.’

2020년 결대로자람학교를 시작하며 갈월초등학교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마음을 모았던 학교 교육 철학이었다. ‘구성원’에는 누가 포함될까? 많은 주체들이 있겠지만 먼저 배움의 중심이 되는 ‘학생’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리두기를 지키며 선거 유세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공약을 세우고 홍보 벽보 만들기와 붙이기도 스스로 해보면서 학교의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일의 즐거움과 의미를 스스로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보자! 학생회 구성(2020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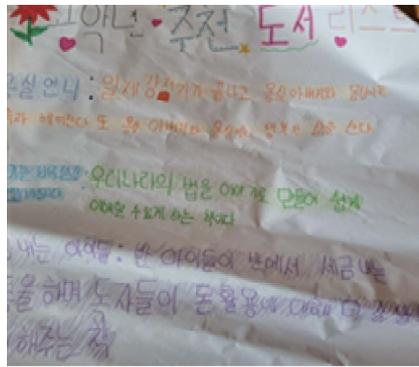


2022년, 전교학생회 학생들은 월 1회 다모임을 통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꾸며 학생들 주도의 이벤트를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아침 자습 시간, 점심 시간 등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계획에서부터 추진까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학생들의 힘으로 운영해 나갔다.



학생회 추진 행사 관련 의견 수렴(2022년)

학생회 프로그램 추진 시 전교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투표게시판을 활용함.



독서의 달 행사: 학생회 추천도서(2022년)

독서의 달을 맞아 전교학생회 학생들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게시함.



1학기를 마치며-친구사랑 이벤트(2022년)

한 학기를 마치며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면 학생회 어린이들이 힘이 담긴 초코파이와 함께 배달해줌.

학생회 주도 활동의 핵심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경험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탐색하여 급식실 입구 장소를 참여와 투표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 우리가 만드는 식단(급식 개선) 2) 학생생활규정 제정 3) 교육과정 반성회 참여의 활동으로 학생회 활동은 확장되었다. 특히나 학생생활규정 회의의 경우, 각 학급에서 ‘진로교육 대상이 5-6학년으로 되어있는데, 3-6학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학생선도위원회에 대한 규정 중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와 같은 의견을 학생회 학생들이 수렴하여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우리가 만드는 식단(2022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와 후식 메뉴를 투표한 후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급식 메뉴로 반영시킴. 급식건의함 내용으로 영양 선생님과 간담회를 가짐.

학생회 다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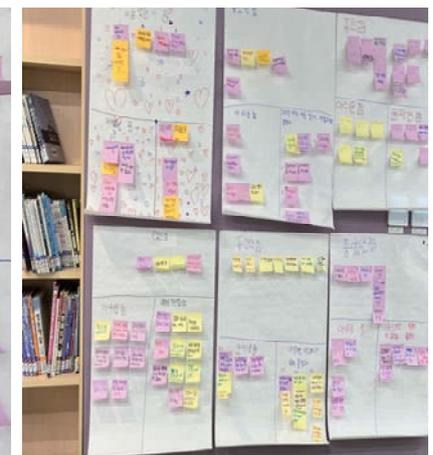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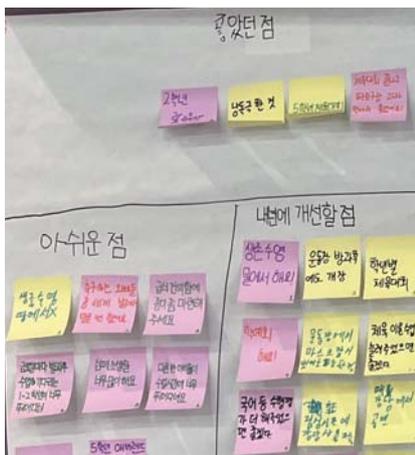
-학생생활규정 제정(2022년)

학생생활규정 마련을 위한 생활규정 초안을 학급다모임에서 토의한 후, 전교학생회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 반영시킴.

교육과정 성찰회(학생, 2022)

한 해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 평가회에서 학생회 학생들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내년에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내고 발표함.

학생 교육과정 성찰회 중 특히 주목해볼 만한 것은 학생회 활동이다. 1년동안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느꼈던 것, 바랐던 것을 들어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를 교사, 학부모 성찰회, 그 다음 해(2023학년) 교육과정 수립 워크숍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반영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학생의 참여가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학생 교육과정 성찰회 결과(2022년)

(좋았던 점) 아버지회에서 열어 주셨던 행사, 학년 체육대회, 굴포천체험활동한 것이 재밌었다, 1교시마다 오셨던 도움 선생님께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셔서 좋았다, (아쉬운점과 원하는점)칼림바 배운 것이 좋았다생존 수업을 물에서 하고 싶다, 체육대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등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음.

학생 교육과정 성찰회 결과 게시(2022년)

학생, 학부모, 교사 성찰회 결과는 갈월 초등학교에서 주로 다모임,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갈월자람터에 1년 상시 게시 해놓으며 토의 시 고려함.

2

[변화_애벌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2022년 12월에 있었던 2023년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참여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회장 후보 6명, 5학년 부회장 후보 7명, 4학년 부회장 후보 6명으로 총 19명이 정부회장 후보였던 것이다. '후보 얼굴 기억하기도 어렵겠다'라는 농담이 들릴 정도로 학생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던 시점이었다.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선된 학생회 정·부회장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 욕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학교교육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자리도 용기 있게 참석하여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였다. 성장이었다.

2023년 5월 8일,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협의회가 열렸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모여 결대로자람학교 종합평가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이 때 6분임 '학생 중심 평가 혁신'주제 토의에 참여했던 학생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시고, 평가 예고를 미리 해주시는 점이 좋다. 그러나 평가 내용이 어려웠다. 학생의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사후에 의견을 받고, 후의 평가계획에 반영되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대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피드백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 모두에게 '좋은 의견이다'며 박수를 받았었다. 더 넓은 영역에서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갈월 교육공동체 일원들은 기꺼이, 즐겁게 누렸다.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협의회
-학생 설문 결과 발표(2023년)**

2023년 교사, 학부모, 학생 3주체가 모인 교육공동체 협의회에서 결대로자람학교 종합평가 학생 설문 결과를 학생 대표 2명(전교학생회장, 부회장)이 직접 발표함.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협의회
-분임토의 학생참여(2023년)**

2023년 교사, 학부모, 학생 3주체가 모인 교육공동체 협의회 2부 분임별 토의에서 학생회 학생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냄.

2023년에 더 활성화된 학생자치 활동으로, 학생들의 주도적 활동은 계속되었다. 5월을 맞이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한편, 전교학생회 회의에서 우리 학교의 일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전교 학생회 회의(2023년)

매월 전교 학생회 회의를 열어 스스로 안건을 정하고 의견을 수렴함. 제 3회 전교 학생회 회의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안건으로 회의를 하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

학생회 주관 스승의날 행사(2023년)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고 아침에 각 학급에 방문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함. 학생회에서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운영함.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민주적 참여 역량의 제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키워주려는 교사와 학부모의 분위기 형성이 학생 자치로 인한 우리의 변화이자 성과였다.

3

[고민_번데기] 우리(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나요?



4년간, 갈월 결대로자람학교에서 학생 참여로 인하여 학생자치 역량이 함양되었고 또한 민주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2022년 교육과정 학생 성찰회, 그리고 2023년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학교 이벤트를 기획하여 주관하는 좁은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급 다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모임에서 나온 의견이 학생회의까지 연결되어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그 영역이 수업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 학생 주도성, 학생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교육 과정 설계자로서의 학생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갈월 결대로자람학교가 가진 학생 자치 역량이 학생주도 교육과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갈증과 고민이 있는 시기를 겪고 있다.

4

[도약_나비] 수업을 주도하는 우리(학생)들이 되기



2023년 2월, 한 해 살이,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갈월 교직원이 모였다. 우리는 이 날을 '따사로운 갈월 봄날'으로 불렀다. 올 해 새롭게 시도했던 점은, 학년 미션을 설정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란을 마련하여 함께 고려하여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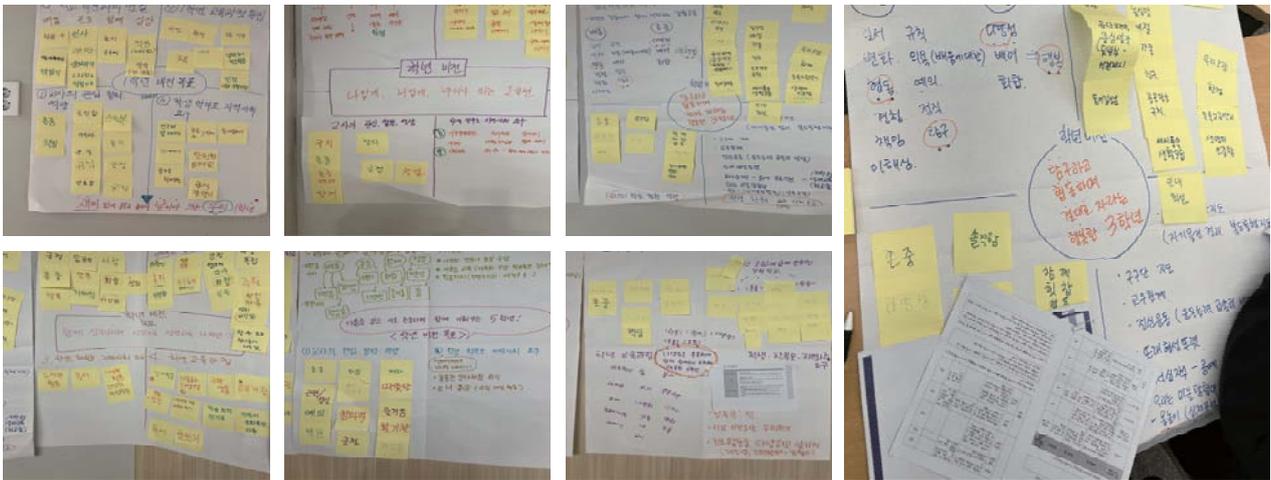
2023 2월, 교육과정 워크숍-다모임(2023년)

2월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고, 2023학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함. 1부 아이스브레이킹 마음 나누기 장면.



2023 2월, 교육과정 워크숍-교육과정 설계(2023년)

2월 워크숍 2부 교육과정 설계 장면. 학년별로 모여 교사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음.



2023 2월, 교육과정 워크숍-학년별 미션 수립 결과(2023년)

1)교사의 철학, 2)학교 비전과의 연결, 3)학년 교육과정 특징, 그리고 4)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 를 고려하여 학년의 목표, 미션을 도출해냄. 2022학년도 교육과정 성찰회 결과도 참고자료로 함께 활용함.

이는 분명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우리 모두의 교육과정으로 한 단계 나아가겠다는 새로운 시도였고, 도약이었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학생들이 직접, 이 자리에서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

교육과정 설계자로서의 학생의 역할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동안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어 학교의 작은 변화를 일으켜 보았던 경험이 쌓여, 그 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역할로 꽃 피우게 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잠깐 서서 우리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고민하는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고 있지만, 이 값진 시간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 할 수 있는, 갈월 교육공동체 성장의 장으로 전환과 도약을 일으킬 것으로 믿는다.

두둥! 학생 성공시대 교육을 향한 작은 발걸음!!

학 교 명	인천작전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20학급(423명)
소 재 지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456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학생중심 교육과정		

1 첫 단추부터 함께 꿰어 나가는 학생 참여 교육



가. 작전초의 학생자치활동은 2021년은 온라인활동으로, 2022 ~ 2023년도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어 의견 수렴은 물론 교육주체로서 행복 작전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나. 2021 ~ 2023 학년도 교육과정 수립 워크샵에 학생자치 동아리 구성원도 참여하여 학교의 교육비전 세우기, 교육중점활동 정하기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



2021 교육협의체 워크숍



2022 교육협의체 워크숍



2023 교육공동체 워크숍



학생 의견 반영(워크숍)



AI교육에 대한 의견 나눔
(워크숍 분임조)



교육협의체 워크숍 학생 참여

다. 학생 설문조사, 포스트잇을 통한 의견, 의견 수합 프로그램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활동으로 문화예술교육, 독서교육, AI교육 3개의 교육을 중점 교육활동으로 선정 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에듀테크 활용 AI교육



독서교육

라.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 중에서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영역의 차시를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문화예술동아리, AI교육 시수를 20차시에서 25차시로 확대 편성)

2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이끈다!



가. 2022~2023학년도에는 학생자치동아리 학생들이 협의하여 수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직접 실행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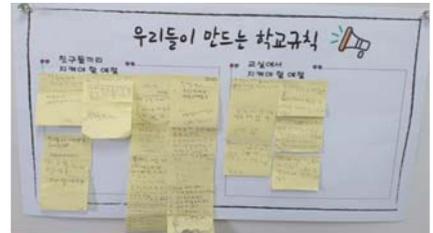
나. 영상 제작, 골든벨퀴즈 진행, 편지 쓰기 활동, 안전캠페인, 전교생 학교규칙 만들기 등의 활동을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영역에서 수업 설계·진행·전 학급에 공유하였다.



수업 아이디어 협의



사랑 편지쓰기 창체(자율활동) 수업 제안



우리가 세우는 학교규칙



창체(자율활동) 작전 이행시 짓기 수업 제안



창체(자율활동) 스승의 날 수업영상 학생 제작



학교사랑 골든벨퀴즈대회 (학생 제안, 진행)

다. 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학생희망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살리는 프로젝트 수업을 전개하였다. 학년별 20차시 이상 연간 4개 프로젝트 수업 (독서,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 등 주제를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내 손으로 건강 간식 만들기
(실과, 다문화교육)



창의 인성 놀이 교육
(체육, 도덕)



여행 프로젝트(사회)



모하하모 THE어울림 프로젝트



생태체험교육



협력적 상호작용의 수업

3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용기!



- 가. 교과를 제외한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을 믿고 교육과정 혁신에 발을 과감하게 들일 수 있도록 수용하는 용기가 제일 중요하므로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 나. 아직 교사 중심의 교육이 교육과정 편성,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교사의 깊은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 교원을 활용한 실습형 연수가 필요하다.
- 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기 전 2월에 이뤄지나 실제로 학생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상황에서 괴리가 있다. 2월에는 학급 담임 비공개 상황인 관계로 학생이 실제로 동학년 교사와 함께 참여하여 재구성, 프로젝트 수업의 구상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 시기에 공개하고 학생 참여의 교육과정 수립 워크숍 전개가 필요하다.
- 라. 위의 이유로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지기 위해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 마. 학생자치가 실제로는 학급 단위 보다는 동아리 중심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급 단위 학생 자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4

작은 발걸음, 멈추지 말고 계속 함께 두박두박!!



- 가. 작전초는 초등학교 학생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수준에 맞는 학생 자치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우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학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나. “대화가 필요해~”
학생들은 담당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보다 학교장이나 교감, 행정실 등 다양한 교직원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듣는다> 등의 대담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한다. 바로 피드백을 받고 자신들의 의견이 빠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이 학생자치 동아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
- 다. 작전초의 워크숍 운영 사례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학급에서도 워크숍처럼 개인의 의견이 공유와 나눔의 과정을 통해 일반화된 의견으로 수렴되는 활동을 사회, 도덕 교과 등에서 일상화 할 필요가 있다.
- 라. 유희교실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학생자치 동아리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릇이 내용을 담는다. 자치동아리만의 별도 공간이 있고 관리만 잘 된다면 학생 자치의 내용도 일신우일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해서초 학생 자치

학 교 명	인천해서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4학급(189명)
소 재 지	인천시 계양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학생중심 교육과정		

1 | 큰 벽을 넘어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학교와 학급의 학생회장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정말 큰 벽이었다. 해서초는 2020년 행복배움학교 지정을 앞둔 대토론회에서 선거를 통한 학생대표 선출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존 선출 방식의 학생회 구성을 폐지하는 것부터 학생 자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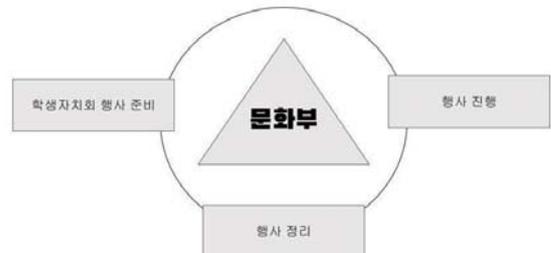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등교조차 어려웠던 2020학년도에도 5,6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자치회를 구성 하였고 그 싹을 키워 202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햇치부 (해서초 자치부)라는 이름으로 학생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회 위원들은 4~6학년 학생들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들로 운영되며 2021년 33명, 2022년 40명, 2023년 35명의 자발적인 자치위원들이 구성되었다.

햇치부는 4개의 소위원회(기획부, 문화부, 홍보부, 복지부)를 두고 있으며 모든 위원들이 원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획부가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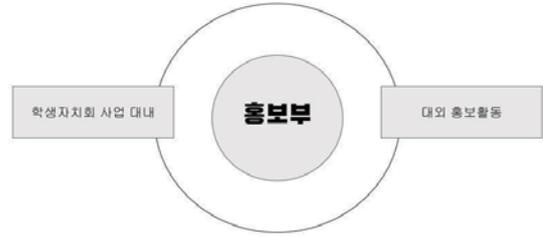
문화부가 하는 일



복지부가 하는 일



홍보부가 하는 일



학생자치회 회의



각 부서별 첫 만남

2 스스로 길을 만드는 햇치부



햇치부의 공식적인 회의는 월 1회로 학생자치위원들이 모두 모여 각 부서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달 부서 행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비공식회의는 주 1회 이상이다. 그 이유는 각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담당교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자치 담당 교사가 행사의 취지와 목적은 이야기해주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주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일을 시켜줄 것이라고 기다리던 학생들은 공식적인 햇치부 회의를 위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각 부서원들이 자주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자신이 학교에서 설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갔다.

누군가 만들어 준 자리는 쉽고 편하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기는 어렵다. 반면 스스로 만든 자리를 좀 불편하더라도 값지다. 만드는 과정에서 배움이 있고, 만든 후에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처음 시작된 햇치부 행사는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쉽고 어설픈 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해 먼저 나서서 학생들의 활동을 다듬지 않고 기다려준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스스로 햇치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매주 자발적으로 모여 고민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햇치부의 문화가 되었다.



부서별 활동



부서별 활동

3 | 앞으로 다져나가야 할 것들



2020학년도부터 시작된 햇치부는 자발적인 학생자치회로서 꽤 성공적인 안착을 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사례는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햇치부 활동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아쉬움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햇치부의 운영이 너무 행사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총 4차례의 전교 학생자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에 건의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을 돌아보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물론 자치회 부서 중 복지부에서 안건함을 통해서 건의할 것들을 받았지만 그 결과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고, 전교 학생자치시간 중에 1번은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 활동을 했지만 이것 역시 한차례의 행사 처럼 지나간 면이 컸다.

예전의 형식적이었던 전교어린이회처럼 실천 약속을 정하고 반성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여러 부분에 관심갖고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회 운동회 TF팀



학생자치회 단체사진

4 |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는 아이들



학생자치를 생각하면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 “날려 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생략) 힘차게 나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너머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 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에게 힘차게 나는 법을 알려주는 일,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까?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껏 날갯짓을 할 장소와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수하여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돌보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줄 어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너는 날 수 있다’는 믿음과 날갯짓을 계속 이어갈 힘을 주는 격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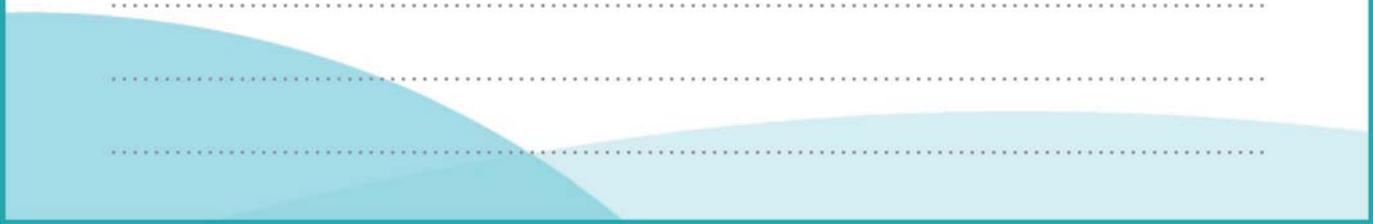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학생자치 활동도 학생들에게 날아갈 기회를 주고,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일이 되길 기대해 본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함께 할수록 빛나는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가석초등학교
인천양지초등학교
인천효성초등학교
인천화전초등학교



자발성과 방향성 공유로 함께 하는 '가석 전문적학습공동체'

학 교 명	인천가석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4학급(273명)
소 재 지	인천 서구 서달로 174(가정동)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3.1.
공동주제 영역	전문적학습공동체		

1 이렇게 모였어요!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모임은 이전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습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 비자발적 참여, 교사들의 피로감 가증 등 다양한 이유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가석초등학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교육현장의 많은 변화 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동학년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는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수업을 디자인했다. 더 깊이 있고 실제적인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한 동료성을 회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소중한 경험으로 가석 교육가족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배움 공동체를 실현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가석초등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두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학년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생활지도 및 학년교육과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주제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결대로자람 학교의 창의적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 주제별로 모여 운영되고 있다.

2023학년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구성 형태	공동체명	운영 주제	운영 기간
학년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1~6학년	생활지도 및 학년교육과정	1년
주제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와글와글 생태 놀이터	자연과 함께하는 통합적 생태놀이 수업 연구	매년 운영 (2021~2023년)
	세계시민교육 풍부하게 속닥속닥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 및 다문화이해 교육 전문성 신장	
	교학상장으로 즐거운 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교실 만들기 연구	
	여기 다 잇(있)-다	마을연계 수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탐색 및 연구	1년(2023년)

2 이렇게 실천했어요!



가. 비전의 공유로 우리가 되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첫 모임 때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사들의 생각을 모았다. 이를 통해 각각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1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 목적**을 정하며 시작했다.

주제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중에서 같은 주제로 매년 구성되어 운영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들은 전년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와글와글 생태 놀이터’는 3년차 전문적학습공동체로서 작년까지는 주로 수업 아이디어 공유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향해 나아갔다면, 2023년에는 그것을 토대로 더 다양한 수업 형태 구성과 학생 참여 중심 활동들을 생각해보고 수업에 적용해보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함께 정했다.

나. 공동 연구하는 학습 조직이 되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제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정기적인 모임**(매주 수요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을 가지고 함께 연구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정하여 읽으며 시사점을 찾거나, 관련된 활동을 교사들이 미리 해보며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외부강사 초청 연수 활동도 진행하며 프로젝트 학습, 수업 탐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서버에 공유 드라이브를 구축해서 활동의 결과물과 자료를 탑재하는 형태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주제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3년간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 매해 기록이 쌓여 가석초등학교만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아카이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왔다.



정기적 모임 활동



외부강사 초청 연수 활동



전학공 아카이브
(학교 서버 공유 드라이브)

필요하다면 매주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 중 한 달에 한번은 ‘**현지 체험의 날**’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자료 수집 및 수업 활동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사례로 2023년 4월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세계시민교육 풍부하게 속닥속닥’의 주도로 동인천 일대에서 교직원 대상 현지 체험의 날 겸 워크숍을 운영했다. 그동안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공유하고 인천세계시민학교 세계시민교육 실시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를 도우며, 구상한 프로젝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그룹별 현지 활동 및 주제 관련 그림 동화책 함께 보기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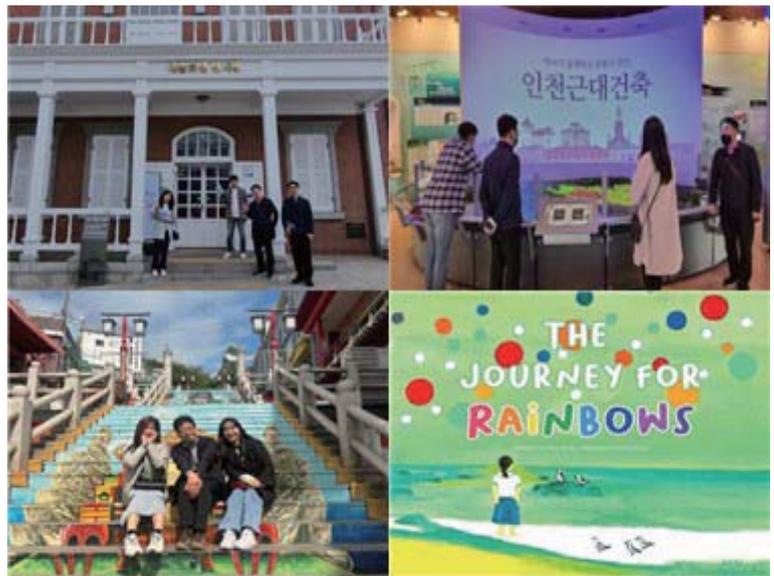
읽어 읽어 한 줄씩 써보는 **행복** 7차어 교육

인천세계시민학교 교직원 현지체험연수 운영 계획

인천가석초등학교 황재호교장부

- 목적**
가. 세계시민교육으로 운영의 본연의 성취
나. 지역사회의 특성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실시를 위한 겨우 수절 및 역량 함양
- 명칭**
가. 인천 속 세계, 세계 속 인천을 상징하여 세계시민교육 계발을 함양한다
나. 지역적, 문화적, 예술, 역사, 스포츠 등은 학습공동체활동으로 교육학적 본연성을 함양한다
- 세부계획**
가. 일시: 2023.4.28(토) 14:40-
나. 장소: 동산문 일대(대행방) 및 인근 시설
다. 대상: 전교직원(교육지원청 포함)
라. 일시: 2일
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함양
나. 세계시민학교 추진 과정 현황 및 2023년과 2024년 사업 진행 모습
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용한 향수기(인천해상문화지구)와 세계시민교육 연계 방안
라. 연수 내용 및 일정

시간	일정 및 내용
14:40~14:50	학교 - 인천행 기차 - 수절 종료 후 인천행 출발 - 푸르지오호텔 - 그라운드호텔에서 연수
14:50~15:30	1. (주제) 1950년 이전 일 - 생활의 역사문화유산의 일대, 인천근대건축물, 도시의 구조그림 2. (주제) 1950년 이후의 일 - 한국전쟁이후의 일대, 인천근대건축물, 인천의 도시구조, 인천의 기후환경 등



현지 체험의 날 연수 계획

현지 체험의 날 활동

이러한 공동 연구와 활동을 바탕으로 실생활 맥락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과제(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능동적 학생 참여와 협력적 관계를 이끄는 수업을 함께 설계하였다.

다. 교실 수업으로 이어지다.

공동 연구와 학습을 통해 익히고 함께 만든 프로젝트가 아래 사진의 사례처럼 교실에서의 수업으로 연결되고 적용되었다.

성취기준 재구조화 개발	관련교과 및 단원	차시	활동 내용	시기
통합 [4국05-04/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감상하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국어 9. 어떤 이야기일까? 10. 문학의 향기	1~4	<그림책으로 만나는 생태전환교육> • 「나무가 자라는 밭덩」 그림책 읽기 •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상상하고 그리기 • 작품 감상 및 공유하기	5월
통합 [4미03-01/03-03] 미술의 다양한 표현 주제를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미술 1. 내 생활 속의 색	5-8	• 「플라스틱 섬」 그림책 읽기 • 환경오염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하기 - 편지쓰기 - 포스터 만들기	
[4과16-03]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역할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과학 5. 지구의 모습	9	<지구도 우리도 공동체> • 지구의 대기에 대해 알아보기 • 우리는 서로의 생태계(공동체) 놀이 - 지구를 굴러라! - 우리가 하나가 되어	
[4체03-08]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	체육 3. 경쟁	10~	• 지구의 날	5월

'세계시민교육 풍부하게 속닥속닥' / 교육과정 재구성 및 프로젝트 계획

그림책으로 만나는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

교육
과정

국어 4-1-10. 문학의 향기

미술 4-1-1. 내 생활 속의 색



‘세계시민교육 풍부하게 속닥속닥’ / 프로젝트 수업 모습 및 학생 결과물

라. 개방과 공유로 함께 성장하다.

모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실에서 실천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함께 협의하여 수업으로 도출해 낸 내용을 한 반이 수업을 하고 나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보완하여 다른 반이 적용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업데이트되는 수업 자료는 공유 드라이브를 이용해 쉽게 공유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다모임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각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모임은 주로 구성원들의 교실을 돌아가면서 방문(교실 나들이)하고 그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각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가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도해보는 경험을 위해 방문한 교실의 주인이 호스트가 되어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교실을 열고 함께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 개인주의 대신 서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3 이렇게 변화했어요!



가. 교사의 성장: 수업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자신감 형성

“함께 수업을 연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 명이 아이디어를 푼 던지면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근사한 수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되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함께한 한 선생님의 말이다. 수업에서의 협력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집단 지성의 힘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수업’으로 바라보는 수업의 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업을 교사들이 함께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공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나. 수업 및 교육과정의 변화: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육활동의 선순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한 내용이 교육활동에 반영

되고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과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면서 학생들은 배움을 즐거움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4 | 마치며



‘어떻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잘 가꾸어 갈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발성’의 문제이다. 바쁜 업무의 와중에 어떻게 교사들이 ‘스스로’ ‘즐겁게’ 모여 공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방향성’의 문제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거리이다. 함께 모여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방향성이 없는 학습공동체에 대해 교사들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천가석초등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시작하면서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모였기에**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매년 발전하며 이어질 수 있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연결되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생의 성장이다. 그러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움을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교사 역시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고,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외로운 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십시오”라는 인디언의 속담처럼 서로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함께 배움·함께 나눔·함께 성장하는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

학 교 명	인천양지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7학급(303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전문적학습공동체		

1 ‘함께 배움·함께 나눔·함께 성장’하는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며

결대로자람학교를 시작하는 첫해는 다양한 교직원 다모임과 학부모 연수를 통해 결대로자람학교에 대한 철학과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학년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창의적 교육활동 운영,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결대로자람학교 관련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 밖에 없었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모습과 방법 또한 수정이 불가피했다.

2020학년도에는 원격수업 방법을 익히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학생 지도와 학습자료 개발, 학생 상담을 위한 시간이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학년교육과정운영 중심의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구축되었으며 학년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더불어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여전히 적용되었던 2021학년도에는 학급경영, 생활지도, 수업나눔, 역량강화의 영역에서 교직원 모두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원의 교육활동 강점을 공유하는 양지나눔클래스 활동을 운영하였다. 방역수칙이 완화된 2022~2023학년도에는 교직원자율동아리 형태의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4년 간의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성장과정을 담고 있다.

2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코로나19는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학교에 도입하게 했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에 대한 부담감과 준비 과정에 대한 수고로움 속에서 원격수업의 방법과 에듀테크 활용 방법을 익혀야 했다. 하지만 원격수업은 동학년 중심의 수업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학년별 협의와 전체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방법과 수업 지원 아이디어를 나누었으며 학생 맞춤형 학습 자료의 개발과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 자율장학 실시와 공동수업 디자인을 통해 끊임없이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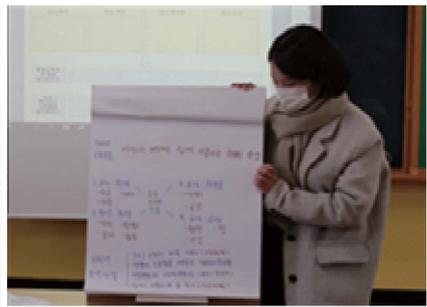
수업의 개선은 교사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가능해진다. 공동체의 협업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내용을 나누며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속에서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2020~2023학년도 4년간 학기별 2회 이상의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과 자율장학, 학부모 공개수업, 수업 협의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시할 수 있었다.



수업협의



수업나눔



2020~2023 교육과정 연수

나.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공감과 존중으로 연대하는 학습공동체’활동

결대로자람학교를 시작하면서 교육 3주체가 함께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목표로 ‘공감과 존중으로 연대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별 1회씩 교육공동체 공감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역량 강화 연수 실시와 공동 연구, 수업개선 등의 노력을 했다.

2020학년도에는 ‘공감과 존중으로 연대하는 회복적생활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 학생과 교사가 겪는 문제 상황이나 갈등에 대한 바른 대처 방안을 찾아보고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교육적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교와 교실, 가정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2021학년도에는 ‘공감과 존중으로 연대하는 평화교육’ 공동체 활동을 통해 평화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과 학교에서 가져야 할 평화교육 감수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평화교육과정의 목표 세우기와 평화교육 디자인을 통해 학교와 교실, 가정에서 평화교육을 적용하고자 했다. 2022~2023학년도에는 ‘공감과 존중으로 연대하는 기후생태환경교육’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년말 공감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새학기 교육과정 연수에서 우리 학교에 적합한 기후생태환경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학교 전체의 기후생태환경교육 목표와 활동을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학년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기후생태환경교육 관련 도서 탐독 및 환경전문기자와의 만남, 생태탐방 및 기후생태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은 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함께 배우고 나누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신장을 꾀할 수 있었다.



2020~2021 공감토론회



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학습공동체 체험 연수

다. 개인적인 배움을 공동체적 배움으로 확장하며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양지나눔클래스

누구나 하나쯤은 나만의 노하우(어떤 일을 오래 함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정보나 경험)를 가지고 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모두가 각자 알고 있는 교육 혹은 생활의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얼마나 풍성하게 그 지식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문화센터의 원데이 클래스처럼 접근하기 쉬운 우리들만의 강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지나눔클래스를 운영하였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급경영, 생활지도, 수업 나눔, 역량 강화의 영역에서 희망하는 주제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림바 연주 지도법 연수, 종이접기를 활용한 학급경영 방법, 교수학습 지도 원리, 소프트웨어 활용, 비폭력대화와 공감대화법, 학교폭력과 생활교육, 애니어그램을 통한 학생 지도, 학급화폐를 활용한 학급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양지나눔 클래스 연수를 통해 개인적 배움이 공동체적 배움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종이접기 활용 연수



소프트웨어 활용 연수



교수학습지도원리 연수

라. 교과수업개선을 위한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역수칙이 완화된 2022~2023학년도에는 교직원자율동아리 형태의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시작하였고 공예동아리, 배드민턴/테니스동아리, 지역 생태탐방동아리, 글쓰기 독서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공예동아리에서는 미술, 실과,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종이공예, 양말 목공예, 친환경 비누 만들기, 가방 만들기 등을 함께 배우고 난 후 각 교과에 적용하여 교과학습 내용을 다채롭게 구성하였고, 글쓰기독서동아리에서는 학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독서토의 방법과 책만들기 실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책임기와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지역생태 탐방동아리에서는 마을의 생태탐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물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배드민턴/테니스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사의 체육 실기지도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함께 배우고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고 실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향상해나갈 수 있었다.



공예 동아리 수업 연계 활동



배드민턴/테니스 동아리



생태탐방 동아리

3

전문적 협력을 통한 역동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가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공동체 구성원의 개별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개개인의 상호작용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개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동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지난 4년간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공감과 존중으로 연대하는 학습공동체 활동, 개인적인 배움을 공동체적 배움으로 확장하며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양지나눔클래스, 교과수업개선을 위한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양지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전문적 협력의 지속을 통해 역동적인 배움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업 나눔과 수업 대화, 수업 성찰과 공동수업 디자인을 통한 수업 방법 개선 활동,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학생 수업 성공을 위해 함께 해요! 같이 해야 할 수 있어요!

학 교 명	인천효성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8학급(319명)
소 재 지	인천시 계양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전문적학습공동체		

1 | 효성 교원 전학공 4년간의 이야기, 미미한 시작 그 끝은 창대하리라

[장면1]

2020년 5월 어느 날, 본교 전학공 효성수행Book 첫 모임에서 받은 의아함과 황당함에 본교 전학공에 대해 리셋이 필요함을 느꼈다. 본교는 20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저·중·고로 나뉘어 전학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년형 전학공은 필요했고 학년마다 주제를 달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첫 모임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인 걸로 하고 빨리 끝내죠.”.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전학공은 자발성에 기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원의 자발성이 없으면 결국 전학공은 그냥 낭비되는 시간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 했다. 저·중·고로 나뉘어져 있어 의무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본교 전학공을 리셋해야 함을 느꼈다. 저·중·고로 전학공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희망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재정비를 하였다. 의무 참여가 절대 아님을 강조했다.

[장면2]

2023년 5월 17일 ‘풀꽃 친구’ 전학공 정기 모임이 있는 어느 날 어느 회원님의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저 오늘 일이 있어 조퇴해야 하는데 어찌죠? 전학공에 참석해야 하는데, 꼭 참석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학공 모임에 참석하는 교사들 덕분에 더욱 활기차지고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 효성의 전학공, 추가로 전학공 참여를 신청하는 교사들, 생태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온작품읽기 활동으로 어떤 수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 수업 후 피드백을 서로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다.

〈운영 경과〉

- 2020년 5월 첫모임. 자발성 결여로 리셋
- 2021년 주제별 전학공 회장 모집 및 생태 독서로 중심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 2021~2023년 교사들의 희망에 따라 생태 및 독서 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매달 수요일, 목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실천하는 수업 중심 학습공동체를 운영
- 협력적인 연구문화조성과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통해 다양한 배움 중심 수업 공유
- 공동주제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4년간 연수 운영(생태, 독서, 놀이, 공감경청)



2020년 효성수행BOOK
예술가치효성/공별공감효성



2021년
효성오작교/온작품읽기연구회



2022년
풀꽃친구/온작품읽기연구회



2023년
풀꽃친구/온작품읽기연구회

2

전학공으로 탄탄해진 수업! 효성 수업의 변화, 수업이 중심인 학교가 되다.

- 주제별로 구성된 자발적인 전학공 운영은 생태, 독서교육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풍토가 정착 되었으며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내용을 수업에 접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 주제 중심 전학공에 참여한 교사는 무학년제로 운영되어 전학공 회원인 교사들은 각자 학년 학습공동체 협의 시간에 전학공에서 연구한 내용을 학년공동체에 같이 공유하는 선순환이 되었다.
- 학년 중심 전학공에서는 학기 초(2월) 학년별 워크숍을 통해 학교 전체 비전에 부합되는 동 학년 구성원들과 학년별 목표, 교육중점을 세웠으며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을 함께 구성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학년 공동수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년별 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은 공동 수업 연구로 직접적인 수업의 변화를 꾀하여 학생,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가져 왔다.
- 또한 교직원들은 교직원 실기 행복 동아리(라인댄스, 탁구, 회화, 요가·필라테스 등)를 선택하여 활동 하여 개인의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체육, 미술, 창체 등 다양한 교과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2021년 동시집 발간



2022년 문장으로 표현하기



2023년 전학공 연구 내용
교육과정연계



2023년 천마산 생태수업
대별레 관찰하기



2023년 교직원 실기 동아리 운영



2023년 2월 교육과정 세우기 워크숍



2023 교육과정 수업 및 교육활동 성찰협의회



2023년 온작품 읽기연구회 초청 '지구를 빼앗지 마' 저자 초청 연수

3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는 효성 전학공은 계속된다.



- 전학공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아마 없을 것이다. 다만 2020년 효성초에서처럼 전학공을 위한 전학공 운영은 교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인한 전학공 운영이야말로 전학공 운영의 핵심 일 듯하다. 이에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수업 향상을 위해 연수하는 자발성과 책무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고 여전히 연구 중이다. 다양한 자극은 관리자의 지시도 아니고 교육청의 업무 지시도 아닐 것이다. 바로 동료애를 기초로 한 동료교사들의 다양한 연구 및 노력이 아닐까 한다.
- 23년 현재도 동료 교사를 위한 소리 없는 전학공 리더들의 헌신으로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함께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려는 전학공 리더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수업 공개의 자발성은 아직 부족하다. 전학공 운영 교사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상시 수업 공개를 해야 하며 수업이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적이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4

4년을 마무리하는 전학공의 고민과 과제를 솔직하게 말하다.



교사의 학습공동체는 교육 비법 및 학습 방법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같이 더불어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다. 교사들 각 개인의 개별적 연수보다는 공동의 연구 협력 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교실을 개방하고 함께 모여 연구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학습공동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활발한 전학공활동은 필수적일 것이다. 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고민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발성과 책무성을 갖고 있는 전학공 리더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 2) 일상의 수업을 공개하고 성찰하는 방법적인 면은 무엇이 있을까?
- 3) 전학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자들의 지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4) 모든 학교가 1년 2회 정도의 공개수업을 공식적으로 갖는 이 시점에서 상시수업 나눔은 전학공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 5) 전학공 회장님들의 소리 없는 헌신은 동료교사들의 공동 연구로 이어지고 수업에 대해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학공을 이끌고 나갈 회장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 6) 수업 공개와 수업 참관의 부담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형식적인 수업공개가 아닌, 일상의 수업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앞으로도 우리 교육공동체가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혼자서 해결하려는 자수성가 신드롬을 극복하고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업 성공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한다. 단순히 전학공의 참여율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했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통해 각자의 수업을 개방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성장이 일어나고 더불어 교사 성공, 학생 성공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일 것이다.



함께 할수록 빛나는 교사, 다시 전학공에서 길을 찾다

학 교 명	인천화전초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38학급(858명)
소 재 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 3. 1.
공동주제 영역	전문적학습공동체		

1 전학공의 의미를 되돌아 봄!



교원들의 학습조직인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는 집단지성이라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반면 실천력에 있어서는 한번 시작하기도 끝까지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내형 전학공은 학교 안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학교문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실천, 공유 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동료성 강화 및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행복한 성장을 지향한다. 하지만 전학공에 대한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다.

실제적 학교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각자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처 방법도 모르고 관계된 사람 또는 업무로부터 받게 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때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도움이 절실하며 같은 마음과 뜻으로 모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다져가는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동 학년을 중심으로 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모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모임이 없다면 선생님들은 다른 교사와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얼굴도 모른 채 지낼 수도 있다. 반면 전학공을 통해 모임을 하며 대화하고 유대감을 쌓다 보면 쉽게 다가설 수 있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아울러 생활지도도 함께 해나갈 수 있고, 주제 탐구를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량 향상과 집단 지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할 때 교사의 역량이 향상되고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매월 1회 이상 수요일을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로 정하여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및 수업협의, 생활교육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주제별 활동을 한다. 학년 외 학교 안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전학공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수업, 학교 문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실천, 공유 활동을 실시한다. 주제 탐구 및 연구에 필요한 교육 자료 수집 및 수업, 관심 교육 등 전문성을 함께 신장할 수 있도록 외부 체험활동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전학공의 시도와 성과, 교육공동체의 변화 양상을 바라볼!



작년까지는 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는 주제형 전문적 학습공동체 대표가 자발적으로 특정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교사를 모집·구성하였다. 교육과정, 수업, 학교 문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실천, 공유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공동연구(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 수업나눔 및 교육활동 실천 → 나눔 활동 실천을 기반으로 하며 학기 초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학년도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주제형 공동체명	참여 인원	공동연구
인천 역사 탐방	교사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단원 지도를 위해 우리 지역(계양구, 부평구 중심)의 역사지를 탐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에 활용
체육문화사랑	교사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실기 연수를 통해 좋은 체육 수업에 대한 집단 탐구와 공유를 통한 전문성 신장
향토 탐사대	교사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고장 주변 구석 구석을 둘러보며 교과 관련 학습자료를 수집 및 공유하고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우리는 튼튼, 탄탄 저학년 선생님!	교사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학년 통합교과 관련 봄여름가을겨울별 생태학습, 기초 기본 교육(학습 부진아 지도, 난독증 한글 지도)
원서읽기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사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원서 읽기 활용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방법 탐구
친환경 플랜트 디자인, 환경사랑	교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위기 속에서 친환경적 생태자원을 찾아보고 일상에서 플랜트 디자인 및 플랜테리어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환경교육의 전문성 신장

2021년도에는 자발적인 자율 전학공 모집과정을 시도해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 교사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배우는 활동을 함께하는 ‘철소’(철학하는 쇼팽)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활동내용으로는 기초학력 지도 방법(수학), 원격수업도구 활용 방법, 그림책지도와 수업사례 나눔 등이 있었다. 많은 인원수는 아니었지만 교실에서의 바쁜 일상 가운데 교사들의 주도적이고 자생적인 배움과 나눔의 실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4년간의 전학공을 통한 학습공동체의 변화는 수업 개선을 위한 집단지성 함양으로 교육의 다양한 문제 공유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게 했고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등과 연계된 학년 중심의 학습공동체 및 자율공동체 운영, 동료교사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공동협약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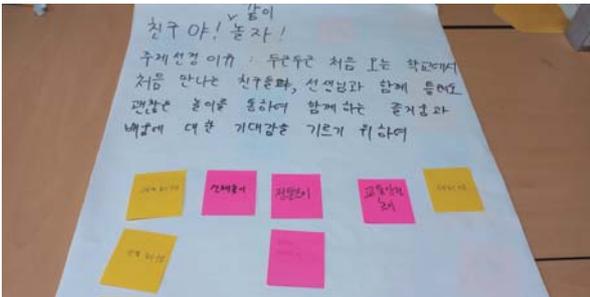
또한 학년 체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로 인해 학년부장 업무 과중, 이에 따른 문제점을 수업 중심 학년형 전학공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솔선과 협력, 상호 존중 분위기를 형성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학년형 교육과정 체제 수립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및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수업 활동을 위한 교구나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교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연수를 계획하여 추진하였고 다양한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 방법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수업 연구 공동체의 장이 마련되어 교육과정, 수업, 학교문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실천, 공유 활동이 전개되었다.

3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전학공 사례와 경험을 새겨봅!



“함께 모여서 자료를 나누고 수업 노하우를 나눌 수 있어 학년 운영에 도움이 되었어요.”
 “수업 자료 나눔뿐만 아니라 각 학급의 생활지도 노하우도 나누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함께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1학년 전학공에서는 코로나19 시 수시로 협의하며 온라인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블렌디드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같은 학년의 교사와 함께 수업을 연구하여 자료 수집이 용이하였고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년 전학공이라서 시간을 내어 연구하는 것이 수월하였고 자료 나눔과 수업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도움이 되었다.

4학년은 사회 교육과정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교사들이 인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는 의미로 <인천탐사대>라는 전학공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운영하고 있다. 인천의 중심지와 문화재 등을 답사 및 조사해서 수업자료를 수집했으며 사회시간에는 심도 있는 인천 탐구를 위해 책만들기, 향토골든벨, 인천 사랑 사진전, 학교 담벼락 투어 등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도 인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내실 있는 사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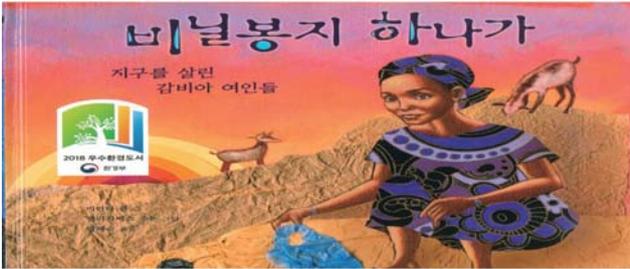
굴포천 답사



향토골든벨대회

“교사와 학생 모두 인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활동을 거듭하면서 애향심과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어요. 또한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실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5학년은 전학공 활동 주제로 [온작품읽기]를 실시하였다. 학년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하여 세계시민 교육으로 지구촌의 환경과 생태계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함께 읽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공존하는 환경 지킴이 되기]를 실천하였다. 아주 아주 센 모기약이 발명된다면, 비닐봉지 하나가, 북극곰 윈스턴, 지구온난화에 맞서다 3가지 책을 선정하여 과학, 국어, 미술을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환경관련 온작품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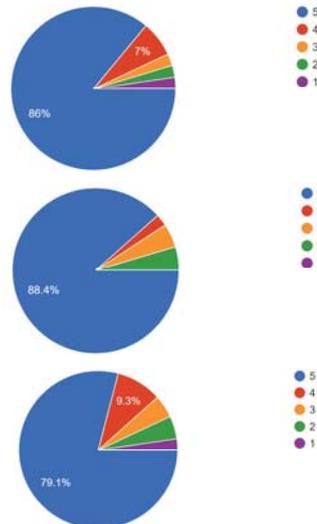
교사들이 직접 비닐을 잘라 재활용하여 제작

“교과와 그림책을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해서 실시하니 자신감 고취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학공 외부 견학 및 활동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있었다. 연구 시간 확보와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해도 학부모의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결과물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함도 알게 되었다.

4년간을 돌아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설문 결과

1. 우리 학교는 전 교사의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와 실천 중심의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2. 우리 학교는 내실있는 전문적학습 공동체 활동을 위한 예산, 시간, 장소를 지원하고 있다.
3. 우리 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연구 및 실천, 일상 수업 나눔이 활성화되고 있다.



4년간의 전학공에 대한 우리 학교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80% 내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학년 또는 주제형 전학공으로 자발적 구성을 통해 운영되었고 예산, 시간, 장소 등도 원활히 지원되었다. 공동 연구 및 일상 수업 나눔 활성화 부분에서는 교사의 자발적 노력과 연구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 학년 교육과정 공동 연구와 전학공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동 연구 및 실천, 일상 수업 나눔 등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편차도 높게 나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업무가 아닌 기존 활동들과 연계가능한 것을 찾아 전학공 운영의 묘미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해법을 나눠볼 수도 있겠다.

4

다시 전학공, 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고민과 과제



전학공의 시작과 유지의 핵심은 전학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잘해보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이를 잘 발휘하기 위해 2월 새로운 전입교사와 함께하는 신학기 워크숍을 활용하면 좋겠다. 학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유 없이 일정이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왜 전학공이 교사에게 필요한지', '전학공 운영이 어떤 도움이 될지'를 질문해 교사 스스로가 생각하고 답해볼 수 있도록 하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자율장학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우리 학교는 실제 학년 및 주제형으로 전학공이 구성 및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형성되었다. 또한 전학공 활동을 위한 예산, 시간, 장소 등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성장시키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 꼭 학생의 학습과 연관되지 않고 교사의 자질과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 부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문가 초빙 연수, 연구 자료 구입에 예산의 확충과 전학공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마음가짐과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경감 등 상호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는 전학공을 좀 더 내실화하고 기존 활동 중 연계 가능한 것들은 상호 보완하여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중심의 공동체와 더불어 교육 회복적 의미의 모임과 지원이 필요하다. 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유(나눔) 방법에 대한 정교한 방안 마련이 논의되어야겠고 공동 연구 및 일상 수업 나눔과 실천의 활발한 전개가 가능한 문화가 총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단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과 연대 등이 더해져 지역과의 연계로도 영향력 있게 퍼져가면 좋겠다.

전학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교, 교육청이 잘 맞물려져서 교사가 전학공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타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배려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의 마음가짐이다. 제도적으로 전학공 시간을 배려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교사의 마음속에 스스로 전학공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없다면 결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학교에서는 학교 행사나 방과 후 학교 일정을 전학공 모임 운영을 고려해 조정하려는 이해와 공감의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교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집단 성장을 꽃피우는 전학공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라 더 좋은 경험을 맘껏 누리면 좋겠다.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 어떻게 가능할까?



부일여자중학교
부평동중학교
인천영종고등학교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 교 명	부일여자중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2학급 (199명)
소 재 지	인천 부평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3. 1.
공동주제 영역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1 학생 주도성 신장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어요~



부일여중만의 특색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서 부일여중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의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기

학교 안팎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활동명	세부 활동 내용		주관	학년도
학교 구성원이 함께한 공간혁신 프로젝트	공간혁신 1 미래교실 조성 - 달보드레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부모+교사 참여 수업을 통한 디자인 ◦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멀티 클래스로 동아리활동+공연+수업+회의에 유익하게 사용함. 	학생 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2020
	공간혁신 2 학교숲 조성 - 부일애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부모+교사 참여 수업을 통한 디자인 ◦ 3주체 교육공동체 회의 통해 학교숲 협의 ◦ 학교숲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협의 ◦ 학교숲 활용 수업 ◦ 수요일 문화예술한마당 및 등갓길 음악회 실시 ◦ 부일애들 시화전(2021~2023) 등 		2021
	공간혁신 3 오픈형 스터디 카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체 대표 교육공동체 회의에서 디자인 협의 ◦ 모둠 활동 및 자기주도학습에 활용 ◦ 휴식 및 담소 공간으로 활용 		2022
	공간혁신 4 스마트팜 구축 및 리빙랩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체 교육공동체 회의를 통한 구축 및 활용 방안 협의 ◦ 스마트팜 구축 (2학기) ◦ 리빙랩 활동 예정 (2학기) 		2023

활동명	세부 활동 내용	주관	학년도
<p>도란도란 함께 나누다 프로젝트</p> <p>3주체 대표 교육공동체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운영 SWOT 분석 및 새학년도 실천 전략 세우기 활동 새학년도 부일여중 교육과정 운영과제(역점과제) 도출 교육공동체 3주체 생활 협약 만들기 교육과정 평가회 및 교육활동 개선 방안 협의 결대로자람학교 종합평가 성찰 협의회 부일여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학교숲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협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교복 개선에 대한 3주체 의견 수렴 결과 안내 및 관련 협의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 홍보 방안 협의 학교숲, 스터디 카페, 강당 조성을 위한 협의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혁신활동 수행 방법 모색 (2학기) 		2021 ~ 2023
<p>민주 시민성 함양 프로젝트 1</p> <p>23학년도 학생 자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교생이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 신학기 반갑다 친구야, '네임 스티커의 주인공을 찾아라' · 등교네트, 행운권데이, 교복데이, 포토데이, 크로스데이 · 스승의날 감사 상장 수여 · 세월호 및 5.18민주화항쟁 추모 행사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에 서클 도입 감정톤 출석부 도입 · 학생회 대표 학생 회의 교육 실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서클을 통한 일상 속 평화교육 (1, 2, 3학년) 	학생 자치회	2023
<p>민주 시민성 함양 프로젝트 2</p> <p>학생자치회와 지역사회 연계 주체적인 사회 참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치회-지역사회 연계(부평2동)한 주체적인 사회 참여 활동으로 민주시민성 함양 · EM흑공으로 지역 하천 수질 정화 활동 (23.6.5. 환경의 날 행사) · 적십자 연계한 지역사회 소외 노인에게 빵 나눔 활동 · 좁길, 등갯길 가로수 돌봄 및 환경 운동, 실내숲 프로젝트 활동 · 부평2동 사회기자단 활동 ·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마을 오케스트라단 활동 · 부평2동과 애플 봉사 동아리가 함께하는 플릿마켓 (22 ~ 23) 행사 	<p>학생 자치회 부평2동</p> <p>애플 봉사 동아리</p>	2023
<p>민주 시민성 함양 프로젝트 3</p> <p>스스로 참여하며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예술동아리 마을 축제 공연 활동 참여 · 예술동아리 공연 참여 : 가야금, 해금, 뮤지컬, 댄스, 밴드 동아리 · 화도진 축제 참여 : 댄스 동아리 	예술 동아리	2022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문화예술한마당 (점심시간) · 부일애플 및 달보드레실 	학생 자치회	2021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동아리 인천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참여 	뮤지컬 동아리	2019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금 해금 동아리 국악한마당 참여 · 2022 가야금 동아리 우수상 	가야금 해금 동아리	2021 ~ 2023



2021 3주체 대표 교육공동체 회의



2022 3주체 대표 교육공동체 회의



2023 3주체 대표 교육공동체 회의



2020 미래교실(달보드레실) 구축 참여 수업



등교맞이 행사(네임스티커를 찾아라)



수요문화예술한마당 밴드 동아리 공연



부평 2동 마을 오케스트라 및 학생기자단 발대식



지역사회 축제 공연 참여
가야금 해금동아리 (2022 ~ 2023)



2023 학생회 스승의 날 감사 상장 수여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플릿마켓 행사 (2022 ~ 2023)



학생자치회 EM흑공 만들기
(23.6.5. 환경의 날 행사)



비폭력대화 리더십 관계회복 씨클회의

나. 학년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의 자기주도성 기르기

학습 시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인 도전,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등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활동으로 생태 친화적인 학교,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로서의 변화를 위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학생의 주도성을 살리는 프로젝트 수업 활동

지식의 암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에서 비판적·창의적으로 지식을 적용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활동 내용		교과	학년
· 코딩 교육과정 : 자유학기 주제선택 - 마을연계 프로그램 연계		수학	1학년
· 예술 강사와 함께한 (연극, 무용, 가야금) 수업		국 음 체	1, 2학년
▶ 역사뮤지컬 프로젝트 수업 및 학부모 초청 공연		융합수업	3학년
학년도	주 제	음악 역사 도덕 기 가 미술	
2019	·광주학생항일운동 ·6.10만세운동 ·항후의 죽음 ·덕혜옹주 ·내일로 가는 계단 ·암살		
2020	·4.19혁명 ·김구 ·윤동주 ·포항여중 전투 ·사도세자 ·5.18민주화 항쟁 ·6월민주화 항쟁 ·허난설헌		

활동 내용		교과	학년
2021	·전봉준 ·조마리아 ·5.18민주화항쟁 ·정미의병 ·이회영 ·6월 민주화 항쟁 ·어윤희 ·동풍신	국어	
2022	·동학농민운동 ·광주학생운동 ·YH사건 ·김구 ·4.19혁명 ·전태일 열사 ·영웅 ·제주 4. 3사건 ·6월민주화 항쟁 ·5.18민주화항쟁		
2023	·2.8독립선언과 3.1운동 ·도산 안창호선생과 그의 후손들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 선생 ·하와이 이민사 바람의 노래 ·박정희 대통령 ·독립투사 현계옥 선생 ·부마 민주화 항쟁 ·강화도 조약		
· 학부모와 함께한 짱짱한 나의 꿈발표 프로젝트 수업		진로	1학년
▶ 교과연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 제2모국 갖기 탐구 발표		진로	1학년
· 교과 연계 한국의 뿌리 탐구 체험활동		전교과	1학년
· 통일여행 상품 제작 발표		도덕	2학년
· 동아시아국가 탐구 발표 (QR코드 활용)		도덕	3학년
· 렌선 세계여행 온라인 여행 상품 계획 세우기 활동		도덕	3학년
· 동아시아 국가 유적지 여행 계획 세우기 활동		도덕	3학년
· 지역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체험활동		역사 사회	전학년
· 동아시아국가의 전통 주택을 찾아서 문화와 특징 탐구 발표		기술가정	2학년
· 세계 속의 발효 식품을 태블릿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문화와 생활 모습 발표		기술가정	3학년
· 독서 토론(토의·찬반 토론) 활동		도덕	3학년
· 도서관 협력수업 : 교과 연계 독서 토론		도서	전학년
▶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과 연계 활동 · 가상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 발표 및 토론회		도덕	3학년
· 학교숲 (부일애들) 조감도 그리기 모둠 활동 및 식물정보 QR코드		과학과	1, 2학년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국어	1학년



학교숲 조감도 그리기(1학년) 및 식물 탐구 활동 (2학년)



2021학년도 학교숲 조성을 위한 참여수업



QR코드 활용 동아시아국가 탐구 활동



학교숲 (부일애뜰) 조감도 그리기 모둠 활동 및 식물정보 QR코드 제작



한국의 부리 탐구 체험활동



인천형 세계시민교육(동아시아문화 탐구활동)



역사뮤지컬 공연 활동 (동학혁명, 제주 4.3사건)



국어과 연극 수업 및 자유학기 주제선택

2)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활동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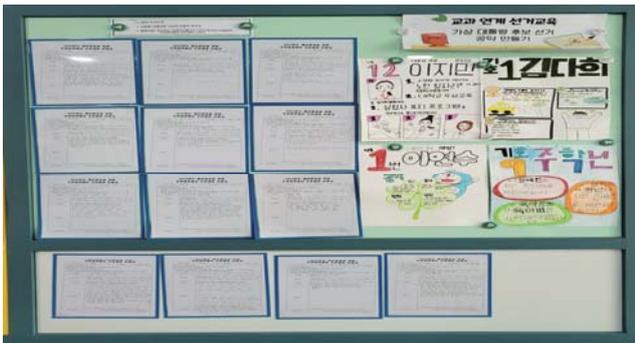
활동 내용	교과	학년
▶ 스토리가 있는 진로 교육과 연계한 마을을 통한 활동 · 걷다 보니 부평 · 마을작가 · 마을활동가 · 협동조합 · 공동체 훈련 · 금융교실	진로	1학년
▶ 마을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체험활동 · 강화도 문화 유적 탐방 체험활동	사회 역사	1학년 2학년
· 부평 일대 일제 강점기 유적지 및 송도 G타워 탐방 활동	역사	3학년
· GIOS를 활용한 지리적 의사 결정 활동	사회	1학년
· 우리마을의 일반지도를 알아보고 마을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그림지도 완성하기	미술	1학년
· 우리 마을과 관련된 글쓰기 활동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우리 마을의 노력은?', '우리 마을, 건강하십니까?'	국어	1학년
· 우리마을 건물에서 여러 가지 도형을 찾고 나만의 건물 디자인하기 주요 건물을 순서쌍으로 표현하기	수학	1학년
· 우리 동네 핫 플레이스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 만들기	영어	1학년
· 우리 동네 병원의 유형과 수를 조사하고 필요한 병원 유형 탐구하기	보건	1학년
·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디자인해 보기	진로	1학년
· 마을 연계 책 읽고, 쓰고, 우리 동네 탐방하기	창체	1학년
· 패러디를 활용하여 우리 마을 노래 가사 만들기	국어	1학년
· 국어 시간에 만든 가사로 노래로 표현하기	음악	1학년
· 우리 말의 생물을 네이처링 시스템을 통해 분류 활동	과학	1학년
· 부평 마을 활동가를 활용한 체험학습	자유학기	1학년
· 부평 도서관과 부개 도서관 활용 수업 및 마을 활동가 인적 자원 활용 수업	도서실	1학년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부평2동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신청서 제출	도덕	3학년
· 부평2동과 부평6동 주민회의 및 희망 음악회 예술동아리 참여	동아리	희망



마을 지도 그리기 (1학년 미술)



책과 함께 동네 한바퀴 (도서 동아리)



부평2동 주민 참여제 제안 신청서 및
가상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 발표 (3학년 도덕)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한 EM흑공으로 굴포천 수질 정화
활동 (23.6.12.예정)

2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 학생, 학부모,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고, 자기 주도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을 길러내는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
- 학교 교육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활동 중 3주체 대표 교육 공동체 회의는 3주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등 학교자치 정착의 토대가 되었으며 결대로자람학교의 철학을 반영한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활동이 되고 있다.
- 지금까지 미약하였던 학생자치회는 2023학년도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2동과 연계한 마을 하천 살리기 등 마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노력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 학급회의 및 대의원회에 적용한 서클 회의의 정착은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
- 학습 시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부평2동, 부평 6동)은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2022~2023)
- 학년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학년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마을연계 주제 통합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에서 지식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주제통합수업의 학년중심교육과정 정착과 함께 내실 있는 수업 나눔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3학년 역사뮤지컬 프로젝트 활동(2019 ~ 2023)은 역사 의식 고취 및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는 의미 있는 활동과 함께 3학년 전환기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
 - 주제융합수업 : 음악, 역사, 도덕, 미술, 국어, 기술가정
 - 3학년 특색 있는 주제융합 수업으로 학습자 주도형 배움중심 수업 활동은 바른 역사 의식, 표현력 및 자신감 함양 등으로 자존감을 높이며, 협력과 소통 추억의 활동이 되고 있다.
 - 1학년 연극 수업(2019~2023년)은 협력적 시나리오 작성법과 자신감 함양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키워 3학년 역사뮤지컬 프로젝트 수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 학교의 공간 혁신(미래교실, 학교숲, 스터디카페, 갤러리식 중앙현관, 서쪽 현관 활용 학습 결과물 전시 등)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 공간을 혁신하여 배움과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문학·예술·체육 교육의 활성화로 결대로 꿈을 키우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로 변화되었다.
- 꾸준한 기후·생태·환경교육 관련 생태 지향적 교육과정(2020~2023) 운영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 감수성과 생태 시민성이 함양되었다.

3

학생 주도성 신장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맞벌이 가정이 많은 편으로 학교 참여 학부모는 국한적이나 건강한 참여 기회를 확립해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개별 교사 차원에서 마을을 위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적용의 어려움을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용하여 교과별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과서 밖 내용의 주제를 찾고, 학교에서 마을을 가르치며, 자기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을연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맞는 역량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필요함.
- 온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기르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에코 스마팜 구축 및 주민 참여 리빙랩 프로젝트 활동으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배움의 만족을 경험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교육과정 디자이너, 학습 코치로서의 역할 변화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주도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

학 교 명	부평동중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15학급(304명)
소 재 지	인천시 부평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3. 1.
공동주제 영역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1 학습자 주도 교육활동으로 나아가기



가. 민주적 공동체 문화 형성

우리 학교는 2020년 3월 결대로자람학교(행복배움학교) 재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재지정 이후 4년간의 교육활동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가 가져온 학교 현장의 혼란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노력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원격수업 TF팀을 조직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우리 학교의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했다.

원격수업 TF팀에서 원격수업 방법과 도구들을 협의하고,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전달 연수를 실시하여 6월부터 ZOOM을 활용한 학급 조종례 도입, 실시간 쌍방향 교과 수업 실시 등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류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수업도 대면 수업을 대체하기는 어렵기에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대면 수업을 전개하였다.

학생 공동체 문화 형성

학생 자치의 출발은 학생의 '참여'이다. 지난 4년간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 참여 행사를 활발히 전개했다. 학교 쉼터 이름 공모, 세월호 추모, 추석맞이 행사, 독도의 날 행사, 학생의 날 행사, 동중제 축제 등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시작된 e스포츠대회는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학년별 온라인 중계방송을 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상호협력적인 학생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년 중심 회복적 생활지도, 학년 특색활동 등 학년 단결 활동이 안착되어 있다.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었던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급우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학기에는 3학년 단합 활동, 2·3학년 1박2일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학년 특색활동 및 학급별 점심 만들어 먹기 등을 실시하였다.

급우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 모듬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우정을 키우고, 함께 방을 쓰는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며 급우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적인 학생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자치회 학생의 날 등교맞이

학생자치회 세월호 추모행사

학생자치회 e스포츠대회 중계

3학년 단합활동(2023)

교사 공동체 문화 형성

미래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주축은 교원이다. 특히 학생들의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해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교육과정 전문가이자 실천자로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우리 학교는 1, 2, 3학년과 교무행정팀까지 모두 4개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우리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년부장이 주체가 되는 학년형으로 운영된다. 처음에는 수석교사가 있어서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후 운영의 주체가 연구부장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 학년부장이 중심이 되는 학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안착이 되었다. 각 학년 담임교사, 교과교사, 특수교사, 상담사 등이 구성원이 되어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의 질 개선, 교육공동체 다방면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생들의 회복적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며 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또한 학년 단결 프로그램 구안, 학년별 연수, 독서 모임 등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연구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런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은 학년별 제안 수업 공개, 수업 나눔 성찰회를 통한 수업의 혁신과 민주적 교사 공동체 문화 형성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교사 문화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친근감, 결속력, 협력을 중시하는 ‘협력적 집단 문화’를 통해 극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행정실장, 주무관,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영양사로 구성된 교무행정팀 전문적학습공동체도 조직·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무행정팀이 단순한 행정 업무 보조의 역할을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실천하며 민주적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2023년	2022년	2021년
총괄교사	홍기, 채희	채희, 채희	채희, 수희
주사	정인숙(교과 담당자), 조은주(교과 담당자)	정인숙, 채희, 조은주(교과 담당자)	정인숙, 조은주
운영교사	김희정(교과 담당자)	정인숙, 채희	정인숙, 채희
서기	정혜주(주무관)	정혜주(주무관)	정혜주(주무관)
교무	최은주(교과 담당자)	최은주(교과 담당자)	최은주(교과 담당자)
평가	정인숙(교과 담당자)	정인숙(교과 담당자)	정인숙(교과 담당자)
관리	정인숙(교과 담당자)	정인숙(교과 담당자)	정인숙(교과 담당자)

2023 학년 제안수업 운영 절차



제안수업 나눔 성찰회



3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



교무행정(동빛) 전문적학습공동체

나. 학생 중심 교육활동 전개

학교의 변화는 결국 수업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변화가 학생들의 변화, 나아가 학교의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 학교는 교과 수업, 자유학기제 수업,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프로젝트 수업, 탐구활동 발표, 온라인 퀴즈 학습, 노트북 활용 수업, 모둠활동, 마을연계 교육활동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관된 주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깊이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 프로젝트 수업 주요 사례

3학년 도덕 <국가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

◆ 수업개요: 국가의 구성요소, 준법, 국민의 의무와 권리, 공익과 사익의 조화, 세계화 등 내용을 담아 프로젝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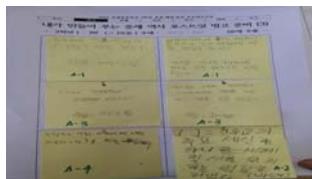
1. 딱따먹기 게임을 통해 자기 영토 만들기,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나라 이름 정하기, 나라 이름 정한 이유 생각하기
2. 중요 가치 정하기, 중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규범 정하기(징벌적 규범, 보상적 규범 조화를 이루며 정하기), 자신의 가치와 배치되는 규범인지 생각하며 정하기,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주거환경, 산업환경, 자연환경 등)에 대해 생각해 적용하기
3. 다른 나라와의 교류 방법 및 공유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적용,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사례 적용하기 (남비, 핼피 사례를 주고 우리 공동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협의, 배치하기), 둘 가고 둘 남기 활동을 통한 상호평가
4. 둘 가고 둘 남기 활동을 통한 상호 평가 내용 기록지 작성, 자신의 나라를 알리기 위한 국가 홍보 팸플릿 작성



2학년 역사 <역사 퀴즈 빙고 게임>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핼커벨 활용

◆ 수업개요

1. 수업 시간에 개인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수업 마칠 때마다 포스트잇 퀴즈 문제로 만들어서 2개씩 파일에 붙여두기(칭찬도장판 배부, 빙고 준비, 검사)
2. 4인 모둠 구성, 빙고 준비, 핼커벨에 사진 찍어 올리기(코드 안내하기)
3. 모둠별 단원 추천하기(교과서 활동시킴이 이용), 개인별 주제(인물, 국가, 사건, 제도, 문화)
4. 포스트잇 퀴즈 활용하여 문제 추출, 모둠별 토의 후 확정된 문제와 정답을 핼커벨에 입력
5. 수합된 학급 전체 문제(25개) 공개 후 공부하기(멘토 멘티 활동)
6. 전시에 수합된 학급 전체 문제 확인하기 (필요한 경우 교사 추가 보충 문제 제시)
7. '7목 포스트잇 빙고' 시작, 우수 모둠 칭찬 도장 부여 및 상품 수여



1학년 과학 <생활 속 과학 탐구활동> 프로젝트

- ◆ 미끄러지지 않는 나만의 신발 만들기 프로젝트
 1. 신발 바닥의 마찰력을 크게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나만의 신발을 만들기
 2. 만든 결과물을 이용하여 마찰력을 측정하기
- ◆ 1N 맞추기 미션 해결하기
 1. 용수철 저울을 이용하여 1N의 무게를 느끼기
 2. 주어진 물품을 이용하여 1N의 무게를 예측해 보고 결과를 측정하기
- ◆ 진동카 경주대회: 진동카를 만들어 모듬별 진동카 경주대회를 실시
- ◆ 금고를 열어라 미션 해결하기: 조별로 학습한 후 문제를 풀고 금고 번호의 힌트 얻기



3학년 과학 영상제작 프로젝트

1학년 도덕 인성교육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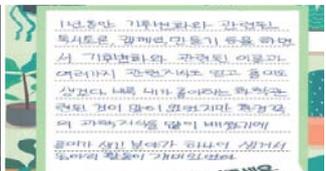
2학년 국어 노트북 활용 발표수업

3학년 국어 독서활동 프로젝트

동아리 탐구활동 주요 사례

글로벌 그린 리더 - 기후생태환경 학생동아리

- ◆ 활동 주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기후 위기 대응 실천 의지 함양
- ◆ 주요 활동
 1. 기후 농벤처스 활동: 텃밭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농업 체험
 2.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과학의 달 행사
 - 기후변화 영상 시청을 통한 기후변화의 원인, 현재 상황의 심각성, 미래사회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 방법 학습
 - 기후변화 홍보캐릭터 그리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공간 디자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디자인
 3. 기후변화 홍보 캠페인 활동: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이상기후, 영구 동토층 파기로 인한 위험성 알림
 4. 독서 토론활동
 5. 태양광 자동차 제작 및 경주 대회: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배우는 활동
 - 태양광 자동차 키트 제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 체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촉구
 6. 자원순환 교육 및 자원순환 보드게임 만들기: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교육, 자원순환을 위한 실천사례 찾고 보드게임 제작



매쓰락-수학동아리 활동

매쓰락-수학동아리 북부페스티벌

매쓰홀릭-수학동아리 하계 탐구계획

매쓰홀릭-수학동아리 동중제 활동

마을 연계 교육활동 주요 사례



마을연계 텃밭 운영



기술가정과 마을연계 교육활동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

2022 부평구교육혁신지구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부평동동) 제1회

2022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사례

구분	연계 분야	연계 대상	연계 일자	연계 내용	연계 결과
교육과정	마을연계	1. 마을연계 텃밭 운영	4.15	마을연계 텃밭 운영	학생들의 텃밭 운영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2. 마을연계 요리 수업	4.22	마을연계 요리 수업	마을연계 요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마을연계 요리 수업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3.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	4.29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고,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4.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5.6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교육활동	마을연계	1. 마을연계 텃밭 운영	4.15	마을연계 텃밭 운영	학생들의 텃밭 운영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2. 마을연계 요리 수업	4.22	마을연계 요리 수업	마을연계 요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마을연계 요리 수업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3.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	4.29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고, 마을연계 등굣길 음악회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4.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5.6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2

협력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결대로자람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학교가 본래 가져야 할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는 '협력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 비전 아래 교육 목표와 학년 비전을 수립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배움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소통과 배려의 윤리적 생활공동체'란 결대로자람학교의 중점 추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자 주도의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실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성과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운영 혁신

- 학교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대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운영 계획 수립, 업무 재구조화를 실시하는 등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과 교직원의 자율성 존중을 통해 민주적·수평적 학교문화가 확대됨
- 소규모 학교지만 학년 담임 중심의 자리 배치로 소통과 협의 통해 학년 운영의 활성화와 학년부장이 중간 리더십 역량 발휘로 학교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됨
- 교육활동 고유 업무 부여 통해 교육행정실무사가 교사 보조가 아닌 교육행정지원 팀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학교교육력 향상에 기여함

공동체 문화 활성화

- 교원전문적학습공동체, 학생자치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실현함
- 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공동 연구, 공동 실천과 나눔을 수행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는 학교혁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 수업 중심의 학교, 협력적 학교 문화가 정착됨.
-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로 학생회의 자기 결정권 강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 지성의 활용, 인권과 평화 존중 의식 고취 등의 성과와 학교 만족도가 높음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협력과 참여 중심의 수업, 학생성장을 위한 평가를 실천함
- 제안 수업 중심의 전문적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과재구성 등 교육과정 혁신 노력과 협력적 학습 풍토가 조성됨
-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수업, 외부 강사와 Co티칭 등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한 다양한 수업 형태를 실천함
- 다양한 체험활동,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이 함양됨

3 | 실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제약

우리 학교는 2022년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모든 공간혁신 사업이 중단되었다.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공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에 기존의 교실 공간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수업 형태와 교실의 기능 변화를 통해 다양한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 활동과 특색 교육활동을 펼쳐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극대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 교실 내 학습 격차 해소 방안 강구

우리 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배움에 대해 수동적이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에 프로젝트 활동에서 학습자 간의 수행 결과에 차이가 크고, 모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둠 간의 수행 능력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모둠활동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이 모둠활동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에 서툰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모둠활동에서 낙오자 없이 협력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민과 과제는?



🍃 인원 감소로 인한 업무 과부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로서 1인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수업 연구, 수업 나누기에 매진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 수, 학급 수가 줄면서 교육복지사, 사서 인원도 감축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일수록 1인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 사서 배치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 미래 교육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결대로자람학교의 길을 걸은 지 8년이 지나가고 있다. 8년간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해 우리 학교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학교의 비전과 목표, 지역 여건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색깔 있는 교육과정' 개발, 학교 핵심 가치, 비전을 담은 학교 브랜드와 학생 캐릭터 제작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 신장을 위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속적 노력

우리 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 8년 차 운영을 통해 민주적 학교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중심의 수업 공개 등 학습자 중심 교육활동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올해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운영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8년차를 지나면서 기존의 구성원들이 전출되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학기 초 우리 학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혁신 학교의 비전과 철학 이해'라는 주제로 교직원 연수를 다시 진행하였다. 그리고 혁신학교 종합평가 성찰회를 진행하면서 구성원들과 혁신학교의 비전, 교육목표를 공유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주도성, 이상과 현실 사이의 무수한 날갯짓

학 교 명	인천영종고등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32학급(623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3.1.
공동주제 영역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1 행복배움학교 재지정, 출발과 고민



행복배움학교 첫 4년을 마무리하고 재지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 3월, 재지정은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를 찾아왔다.

당시 우리의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한층 더 심화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였다. 4년간의 행복배움학교 운영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활동 역시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학년 전학공과 손우정 교수 수업컨설팅, 자발적 수업나눔 전학공 등에 기반한 공동수업디자인 - 수업공개 - 수업협의를 틀이 잡혔다. 이제는 각자의 수업을 바꾸는 단계를 넘어, 함께 주제통합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기로 목표를 세웠다. 주제별 강사를 모셔 강의를 듣고 영종고만의 계획을 세워 보는 ‘교육적 상상, 함께 현실로’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해 2020년 1,2월을 분주하게 보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고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그 모든 계획이 흔들렸기에 실망도 그만큼 컸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은 우리 학교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매번 바뀌는 정책, 만날 수 없는 아이들, 플랫폼이 혼재된 원격수업.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진정성을 둘 다 잡을 것인지 고민했다. 일방향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붙잡고자 동 교과 선생님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활동수업을 시도하고, 원격수업이 힘들다는 아이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낯선 플랫폼을 빠르게 익히기 위해 품앗이 연수를 통해 서로 아는 것을 나누었다. 학년에서 자체적으로 꾸려진 학생기획단이 코로나19로 무산된 수련화·수학여행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했고, 동아리 축제도 발표 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전시하고 실시간 공연을 생중계하는 등 기존의 교육활동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어가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코로나19의 유행이 잦아들고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어 등교수업의 일상이 회복되자 본교의 교육활동은 금세 정상화되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남긴 원격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2 |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나누다



행복배움학교 1기에는 천편일률적인 강의 수업을 벗어나는 것에 집중했다면, 2기에서는 학생들이 몰입하는 수업 디자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교사가 틀을 짜고 학생들이 수동적 참여자가 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는 조력자로서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보고 조언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었다.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학년형 전학공을 통해 그 내용을 공유했다. 유독 수업이 힘든 반에 대해서는 여러 교과에서 동시에 수업 공개를 해서 함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우리의 학업에 선생님들이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무기력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함께 의논하는 장이기도 했다. 그렇게 일 년 동안 노력한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매년 12월 동아리 축제 날 교사들은 수업나눔 축제를 열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수업나눔축제는 다양한 교과에서 시도했던 다채로운 수업을 공유하는 장으로 2022년까지 매년 12월 꾸준히 개최되었다. 일 년 동안 수업한 결과물을 모아 전시하고 수업사례를 발표하는 형태로, 학교 밖으로 연결을 확장하기 위해 직무연수 형태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참여하는 장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교실 한 칸을 비워 전시하고 대면으로 참여하는 연수를 열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패들렛에 자료를 전시하고 게더타운이나 ZEP 등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사례 발표를 했다. 온오프를 넘나드는 블렌디드의 장점이 커서 2023년에도 비슷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ZOOM을 활용한 2020 수업나눔축제

게더타운을 활용한 2021 수업나눔축제

ZEP을 활용한 2022 수업나눔축제



블렌디드로 이뤄진 2022 수업나눔축제(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연수)

- 2022 인천영종고 메타버스 수업나눔축제 방명록 일부 -

-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수업을 더 잘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교 2학년 정○원 학생)
- 전학공을 그저 일찍 끝나는 날 정도로만 여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결과물들과 노력의 흔적이 담긴 각 과목군들의 자료들을 보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들이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한눈에 들어와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 1학년 이○영 학생)
- 같은 학교에 있어도 서로의 수업을 세세하게 알기 어려운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수업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고민 중입니다. (본교 이○혜 교사)
- 학생참여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가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또한 여러가지 주제의 전학공으로 항상 연구하시는 모습이 감동이네요. (인천가현중 안○희 교사)
- 여러 좋은 수업 사례를 볼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중 이○희 교사)
- 고등학교에서 과학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어 중학교 교사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이음중 남○희 교사)
-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꿈꾸며 교사가 먼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강화여고 정○숙 교사)

3

세상과 만나는 학교를 꿈꾸다



배움이 삶과 연결되는 것, 학생들이 자신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재지정 당시 우리의 고민이었으며, 코로나19는 그런 고민을 가속화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학생들이 더 큰 시야로 세상과 만났으면 했다. 2021년, 사람책 프로젝트를 통해 책 ‘리얼 월드 러닝’을 쓴 김하늬 유쓰망고 대표와 학생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고, 2022년 리얼 월드 러닝 영종고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세상과 만나는 학교(세만학)’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주제를 정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해 보는 장을 만들고 싶었다.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2학기부터 시작한 반쪽짜리 프로젝트였는데도 6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했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관심 주제를 선택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17개의 팀이 만들어졌다. 학생들끼리 그룹계약을 작성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토론하여 탐구과정을 구체화했다. 각 팀의 멘토 교사들은 학생들이 탐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책, 자료, 물품, 전문가와의 연결을 돕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ZEP 활용법을 익히는 워크숍을 통해 팀별로 메타버스 공간에 자신들의 주제를 전시하고 발표하는 공간을 구축했다. 탐구 결과 발표회 역시 ZEP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학생주도 세계시민 프로젝트
'세상과 만나는 학교' O.T.

ZEP을 활용한 세만학 메타버스 학습제(학생들이 만든 맵)

- 2022 세상과 만나는 학교 프로젝트 참여 학생 소감 일부 -

- 세만학을 처음 할 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나름대로 잘 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주제가 계속 넓어지고 활동에 진전이 없어 보여도 그것들이 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세만학 활동을 하면서 단지 지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앞으로 살면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프로젝트였어요. (1학년 김○우 학생)
- 내가 직접 고민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했던 부분이 너무 재밌었다. 그 결과물을 전부 담은 영상을 메타버스를 통해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직접 발표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이라서 좋았다. (2학년 이○우 학생)
-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을 제 진로와 엮어서 생각해보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원들과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지시나 압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제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참여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1학년 오○지 학생)
- 이렇게 직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내는 프로젝트는 처음 해보는데 세만학을 하며 새로운 능력들을 많이 기른 것 같다. (1학년 정○민 학생)
- 나에게 세만학 프로젝트는 성장이다. 세만학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방대하고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아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하나씩 모둠원과 상의해 나가면서 다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1학년 전○연 학생)
- 장기간 프로젝트임에도 까먹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 좋았고 성취감 또한 너무 좋았다. 따라서 나에게 세만학 프로젝트란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1학년 윤○셀 학생)

올해도 2023 세상과 만나는 학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7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 1학기부터 계획하는 만큼 좀 더 탄탄한 탐구과정이 되길 소망한다.

4

영종고 교육과정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다



고교학점제 준비교로서 선택 과목이 한층 다양해지면서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전학공 ‘폐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른 지역 연구학교 교육과정부장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다. 여러 사례를 접할수록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와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식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학년형 전학공에서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교과 전학공 역시 수업 개선에 힘을 쏟고 있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워크숍에서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님을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해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 전체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과정부에서는 품이 많이 들더라도 교육과정위원회를 자주 열고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영종고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모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다과목 지도, 수업시간표 고정 등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도 감수했다. 교과 선택 자료집 제작, 교육과정 박람회뿐 아니라 과목 선택을 앞두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최소학업성취수준 지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전학공을 만들어 대비하고 수업량 유연화 및 적정화가 의미있게 이루어지도록 부서 및 교과와 협업을 최대화하고 있다.

아직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토의토론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것이다.

5

이상과 현실 사이의 날갯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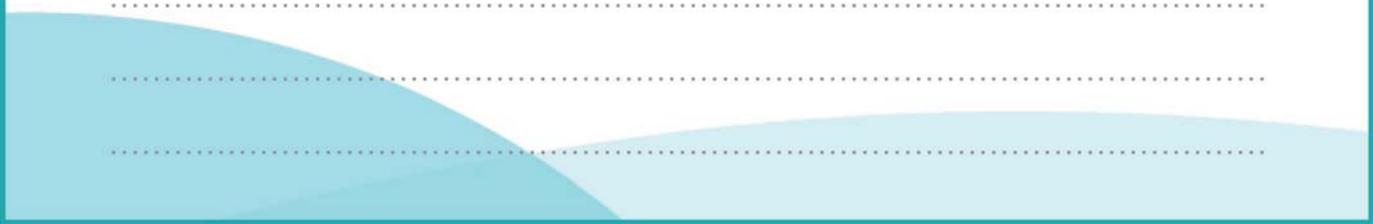
학생주도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반기를 들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 옳은 이야기는 현실에서 한없이 무력하다. 학생주도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터무니 없이 느껴질 때도 많다. 학생주도성이 구현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학생참여수업과 학생주도 수업의 경계는 어디인가? 고등학교의 현실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수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이 내신등급 앞에서 좌절할 때 교사는 할 말을 잃는다. 성취와 변별이 공존할 수 있을까? 게다가 학생의 성장은 즉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정말로 학생의 성장으로 연결 되고 있을까? 교사의 자기만족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물음표는 끝이 없다.

이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 완전히 발을 뗄 수도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수없이 도전하고 좌절할 때,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료 교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힘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교육과정 운영, 어떻게 가능한가?



명현중학교
동산중학교
용유중학교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혁신 도전기

학 교 명	명현중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20학급 (473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16. 3. 1.
공동주제 영역	깊이 있는 학습		

1 4년간 교육과정 운영의 실천 사례



가. ‘아이들은 배우기를 원한다.’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바탕으로 한 배움 중심 수업 운영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수업, 학생들이 수업의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수업,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배움중심수업에 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배움중심수업의 공동 디자인, 수업 나눔 및 수업 성찰을 하였다.



배움의 공동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공동 수업 디자인



모둠별로 학습하는 학생들



모둠별로 발표하고 질의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모둠별 노트북 활용 수업



수업 나눔 및 수업 성찰



나. 학년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년별 주제융합 도서 수업 운영

학교 교육 비전 구현을 위한 학년 교육목표 설정, 학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매년 신학기 워크숍을 통해 학교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학년별 스몰스쿨을 계획하고 운영하였다. 또한 학년별 교육 목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주제융합 수업을 구상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마을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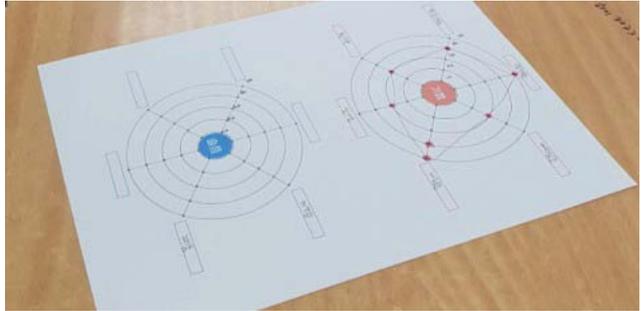
2023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 워크숍



2학년 주제융합도서 '수상한 진흙' 독서토론



3학년 교육과정 운영 (북트럭 만들기)



3학년 교육과정 운영 (감정디자인 마인드업 교육)

다. 학생들이 열광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조정하여 동 시간에 모든 학급이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여 교내 스포츠 리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정규시간을 이용하여 배드민턴, 탁구, 배구, 피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반과 리그전을 하며 스포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켰다.



스포츠클럽 정규 수업 시간 조정을 통해 같은 학년 모든 반이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한다.

라. 다양한 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더욱 성장하는 아이들

창체 동아리 및 다양한 자율 동아리는 학교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동아리 학생들은 동아리 대회 및 각종 과학 행사들을 준비하며 과학 탐구 능력을 키우고, 방학을 이용한 과학 캠프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과학 탐구를 경험한다. 드림트래블러스반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으며, 학교스포츠포동아리 학생들은 지역 대회 출전을 위해 점심시간 및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연습하면서 인내하고 도전하는 스포츠맨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사이언스명현의 과학관 봉사활동



드림트래블러반의 국제교류



스포츠포동아리의 피구대회 입상

2

위기를 딛고 더 성숙해진 혁신학교



명현중학교는 2020년 2기 행복배움학교(결대로자람학교의 옛 이름)로 지정되면서 각 부서별, 학년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계획하던 사업 대부분을 취소했으며, 일주일 간격으로 날아오는 코로나 관련 공문은 교사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내가 혁신학교 교사인지 잊을 정도로 학생들 관리, 원격수업 구축, 원격수업 방법 연수 등 당장 해야 하고 배워야 할 일 투성이었다. 만날 수 없으니 교육공동체 모임,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생자치, 마을연계수업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일반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은 혁신학교에 최대 위기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코로나19 덕분에 쌓인 에듀-테크 능력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명현중학교는 '수업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배움 중심 수업과 교육 과정 재구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2020년 학생 국제 화상교류



2020년 랜선 학생회 리더십 교육



2020년 랜선 학부모회 활동

3

4년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아쉬운 점



지난 4년간 2기 혁신학교로서 명현중학교는 이전보다 크게 발전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무너진 혁신학교 활동들을 예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도 벅찼다. 중간에 관리자 및 담당부장이 계속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교사 초빙을 하지 않아 뜻이 있는 교사들이 모이기도 힘들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전히 학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자치를 지도하고, 진로활동, 마을연계수업을 계획하며 지금 명현중학교 구성원들은 혁신학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는 구성원의 전출이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업 혁신과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해갈 수 있는 학교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4

2기 혁신학교의 고민과 과제



2기 혁신학교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의 혁신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한다.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넘어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혁신을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특성상 전입 전출로 인한 구성원의 잦은 변동 등으로 결대로자람학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낀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햇수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혁신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끼리 혁신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성장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OECD 2030 프로젝트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모두 미래교육의 화두로 ‘학생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중심성과 학생주도성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고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간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교과간 융합수업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이번 연합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동산중의 '나우·누리' 교육과정으로 학생 성장을 꿈꾸다

학 교 명	동산중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21(512명)
소 재 지	인천 동구 동산로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3.1.
공동주제 영역	교육과정 운영		

1 새로운 교육의 풍경, 혁신적인 변화와 도전

우리 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며,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을 목표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 공동체 협의를 통하여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결대로자람학교 속 창의적 교육과정 '나·우·누리'

미래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동산중학교만의 독자적 교육과정인 '나·우·누리'는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학습자의 성장을 고려해 재구성한 교육과정으로 교육 3주체가 참여하여 개발하였으며 소통과 협력,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평적 학교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학기별 교육과정 성찰을 통한 성과 공유 및 도전과제 모색을 통해 민주적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자기 계발 지원 속에 결대로자람학교는 진행되었다.



교사 교육공동체 협의회



나우·누리 교육과정 설명회



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경험 중심의 교육 방법을 나우누리 교육과정 속에 녹여 연구 개발하였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교사가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학생들이 독창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와 활동을 제공하였다.

▶ 맞춤형 교육 제공

협력과 참여 활동 강화 면에서 학생들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동아리, 학급 프로젝트, 봉사활동, 사제동행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였으며 미래 교실, 학교 숲, 에코스마트팜 공간 구축을 위하여 공동체 협의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동구청, 청소년수련관 및 학교 인근 지자체 연계형 교육 협력 공동체를 구성하여, 원도심 지역의 행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획득 능력을 키웠으며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였다. 학부모들과의 정기적인 상담과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성과와 발전을 함께 나누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개선 하였다.



학부모 연수 및 다문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 페스티벌



2

바꾸는 우리의 여정, 변화의 열쇠



▶ 창의적 교육과정 및 공모사업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인천교육청의 중점 정책을 반영하여 기초학력 향상과 교과 및 특별활동 함께채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수학적 사고력, 문해력, 영어 역량 등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4년 동안 발전되는 생태환경교육 및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포함된 나우누리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동산의 특색사업인 생태환경교육을 위하여 학교 숲 조성교, 에코 스마트팜구축, 탄소 중립 시범학교, 기후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학교 텃밭 운영, 환경동아리 등의 사업을 통해 교과 주제융합의 unit small school 구조화 및 체계화로 실생활 속의 생태전환 교육이 이루어졌다.

DONGSAN-IN 프로젝트인 인하대학생과 영어로 알아보는 동아시아 교육, 교과 융합을 통한 동아시아 그림책 제작, 동산 젠틀맨, 세계시민 도전 골든벨 등을 통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정착

되었으며 자율 동아리 환경, 학생 자치, 밴드, 난타, 목공, 비즈쿨 영역 등의 활동을 통해 대회 참여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학교 숲 온실과 에코스마트팜



학교 숲 생태기행 및 체험활동



학생과 교사가 함께한 환경교육 책 제작



생태 전환 교육 활동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 3주체 교육공동체 회의를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져왔으며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복지 문화지원 프로그램(아띠반), 독서토론, 바리스타, 목공, 방역 등 다양한 주제의 지역사회 및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운영되었다.

자기 성찰과 성장

5가지 영역의 가치를 담은 동산 STARS과 동산 젠틀맨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경험하며 자기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장학생을 발굴하였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동산 젠틀맨



동산 STARS와 리더십 캠프

체육적 능력과 건강 증진

1인 1 스포츠 활동(야구, 농구, 축구, 탁구) 및 학교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 (클래식, 챌린지) 학년별 14개 팀, 총 42개 팀 전교생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적 능력과 건강이 증진되었으며 운동 습관과 팀워크를 통해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기회를 얻었다.



목공 활동과 난타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

환경 인식과 사회적 책임감

학교 숲 실천교육, 탄소 중립, 생태전환 교육 및 교실 밖 생태·인문 테마기행, 제로웨이스트 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 이해와 환경 보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4년간의 실천 과정과 성과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 인성적, 체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3 변화와 도전,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한 방향은?



결대로자람학교의 활동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학부모 공개수업 이외의 교과 및 융합적 수업 나눔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 교사의 수업 공유를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과 교육력 향상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희망 영역과 방법을 협의하여 내실이 있는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 진행된다면 학교 교육공동체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며, 적응력과 혁신력을 가진 학습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 과정과 특색사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학교 활동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특색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지속성 있게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계획과 전략, 충분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4

도전과 혁신의 길,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 학생들의 참여 유도: 학생들이 학생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에 진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리더십 발전: 학생들의 리더십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 리더십 교육, 훈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인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위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예산 및 자원 확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예산 관리, 후원 도구 확보, 협력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교과 간 깊이 있는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을 길러나가야 한다.
- 평가와 피드백: 계획-실천-환류를 통해 결대로자람학교의 교육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학교는 완성형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이며, 이 환류 시스템을 통해 지속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와 ‘더불어’를 배우는 CRE용 교육과정

학 교 명	용유중학교	학 급 수 (학 생 수)	3학년(44명)
소 재 지	중구 남북로	혁신학교 최초 지정일	2020.3.1.
공동주제 영역	깊이 있는 학습		

1 ‘스스로’와 ‘더불어’를 배우는 CRE용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가. 문화(Culture) :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정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극, 국악,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 탁구, 댄스, 연극 등을 배우고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심쿵콘서트



학생참여연극



꿈기발표대회



꿈기발표대회

나. 독서(Read): 자아를 탐색하는 인문학 교육과정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 교육을 포함한 인문학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북콘서트, 마을 명사 초청 강연, 저자와의 만남, 국어문화학교, 비폭력 대화 강연, 다양한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인문학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콘서트



마을명사초청강연회



저자와의 만남



책 읽어 주는 날

다. 체험(Experience) : 자립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교육과정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여 볼링, 골프를 배우고 소무이도, 송산, 선녀바위, 씨 사이드파크 트레킹 활동을 통해 자연과 접하며 친구와 함께 걷는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도 캠핑, 동강 레프팅, 요트 체험, 스키캠프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동강래프팅



소무의도 트래킹



왕산요트체험



스키캠프



씨사이드파크 10km 걷기대회



대부도 캠핑



텃밭가꾸기



백운산 등반



캠페인활동



서바이벌 게임

2 학생, 교사 하나의 응집력 있는 공동체가 되다.



-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체험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은 가족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 악기, 공연,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발상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자아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삶과 진로를 개척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3 기록의 힘, 아카이빙



- 선생님, 친구와 함께한 다양한 학교생활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고 남기는 활동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활동이 사진으로만 기록되니 학생 개인의 감성과 느낌이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버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4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로 나아가다.



-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급회 시간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수립, 생활 규칙 제정 등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교 발전해 가기 위해 노력한다.
-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교직원 협의회 결정 내용을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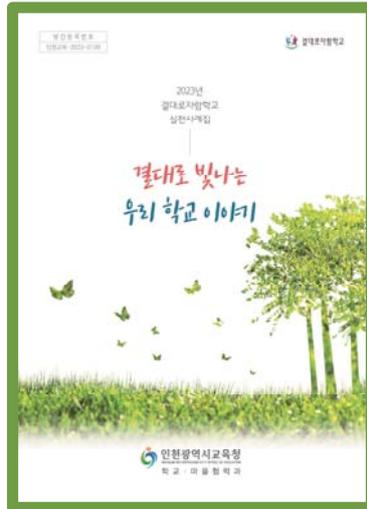


〈만족도조사 참가 안내〉

2023 결대로자람 여름 컨퍼런스

만족도 조사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 주세요.





발행일	2023. 6. 21.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주소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구월동)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 제작	도서출판다인

* 교육용 교재 활용 이외에 무단복제 및 콘텐츠 배포, 사용을 금합니다.